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였다.
- ②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 ③ 명도전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역하였다.
- ④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 ⑤ 의례 도구로 청동 거울과 방울 등을 제작하였다.

정답: ②

*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가장 오래된 유적은 제주도 고산리). 신석기 시대 유적은 한반도 전 지역에 고루 퍼져 있으며, 주로 큰 강 유역이나 해안 지역에서 발견된다.

신석기 시대 유적(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등)에서 발굴된 유물에는 간석기와 낚시, 바늘 등의 뼈 도구가 있다. 그리고 빗살무늬토기(아가리가 넓고 밑이 뽕족)가 널리 사용되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이보다 앞선 토기로 이른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 등이 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살면서 뼈낚시, 그물 등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캐었고, 돌창, 돌화살 등으로 사냥을 하였다. 한편, 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채취하여 먹는 생활을 하다가, 뒤에는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게 되었다.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의 유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 시대에 잡곡류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돌괭이로 땅을 일구고 조, 피 등을 재배하여 돌낫, 뼈낫 등으로 추수를 하였으며, 돌갈판에 갈돌로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며, 가락바퀴(방추차)로 실을 뽑고, 뼈바늘(골침)로 옷을 지어 입기도 하였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땅을 파고 그 위에 지붕을 씌운 원형의 움집에서 살았다(양양 오산리 유적이 유명). 그리고 같은 씨족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하고, 나아가 몇 개의 씨족이 모여 부족을 이루었다. 즉, 이들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과 달리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사회에서는 경험이 많은 부족장이 농사, 사냥 등 생산 활동을 지휘하였다.

① 구석기인들은 이동에 편리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③, ④ 철기 시대 이후 철제 농기구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중국과 교류하며 명도전(연), 반량전(진), 오수전(한) 등의 중국 화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⑤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검과 청동거울과 방울 등을 이용하여 제사를 지냈다.

2.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현도의 북쪽 천 리쯤에 있다.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읍루와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弱水)가 있다. 면적은 사방 이천 리이며, 본래 예(濊)의 땅이다.
-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낼 때는 관은 사용하나 관은 쓰지 않고, 사람을 죽여서 순장하는데 많을 때는 100명 가량이 된다. 왕의 장례에는 옥갑을 사용하므로 한(漢)의 조정에서는 언제나 옥갑을 미리 현도군에 갖다 두어, 왕이 죽으면 그 옥갑을 취하여 장사 지내게 하였다.

- 「후한서」 -

- ① 읍군, 삼로 등의 군장이 있었다.
- ②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③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④ 신성 구역인 소도에서 천군이 제사를 주관하였다.
- ⑤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정답: ③

* 초기 국가 부여

고조선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국가이고, 가장 북쪽인 만주 지방에 자리하였던(고구려 북쪽)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따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 구역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겨문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부여의 풍속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것으로 12월에 열렸다. 이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①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위치한 옥저와 동예의 읍락에는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나, 이들은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② 옥저에는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에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하는, 일종의 매매혼인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④ 삼한에서 제사장인 천군이 주관하는 신성 구역인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⑤ 동예는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3.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신문

제△△호 ○○○○년 ○○월 ○○일

고분 벽화 특별전 개최

○○ 박물관에서는 ' (가) ' 고분 벽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북한의 예술가들이 모사한 강서대묘 사신도, 무용총 수렵도 등의 고분 벽화 수실 점이 전시된다. 또한 안악 3호분 등 (가) 의 무덤 양식인 굴식 돌방무덤의 실물 모형도 함께 전시된다.



사신도(현무)



정답: ③

* 고구려의 문화유산

고구려는 초기에 주로 돌무지무덤을 만들었으나, 점차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꾸어 갔다. 돌을 정밀하게 쌓아올린 돌무지무덤은 만주의 집안(지안) 일대에 1만 2000여 기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다듬은 돌을 계단식으로 7층까지 쌓아올린 장군총이 대표적이다.

굴식 돌방무덤은 돌로 널방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든 것이다. 천장은 대부분 모줄임 천장 구조이고 널방의 벽과 천장에는 무용도, 수렵도(무용총), 씨름도(각저총), 사신도(강서대묘, 쌍영총 등) 등과 같은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이런 무덤은 만주 집안, 평안도 용강, 황해도 안악 등지에 널려 있다.

① 김해 대성동 57호분 출토 종장 판갑옷(금관 가야)

② 발해 상경 용천부 석등: 상경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높이 6m의 거대한 석등이다.

③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국보 119호): 경상남도 의령에서 발견된 고구려 불상(고구려의 연호가 기재). 정수리 위에는 큼직한 육계가 있으며, 소라 모양의 보발(寶髮)이 있는데, 이는 삼국시대의 불상에서는 보기 드문 예로 중국 북조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④ 신라 기마인물 토기 (경주 금령총 출토, 국보 91호)

⑤ 공주 무령왕릉 출토 진묘수(국보 162호): 백제 문화유산. 진묘수는 묘를 지키는 영험한 짐승이다.

4.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정월에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관리들의 공복(公服)을 제정하였다. 붉은 빛과 자주 빛으로 등급을 표시하였다.
- 4월에 이찬 철부를 상대등으로 삼아 나라의 일을 총괄하게 하였다. 상대등의 관직은 이때 처음 생겼는데, 지금의 재상과 같다.

— 『삼국사기』 —

- ①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 ②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③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 ④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 ⑤ 자장의 권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정답: ④

* 신라 법흥왕의 업적

법흥왕은 병부와 상대등의 설치(531), 율령의 반포와 공복의 제정(520)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또, 골품 제도를 정비하고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여(527)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건원(536)이라는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자주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532). 이로써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완비하였다.

① 신라 지증왕(500~514)은 이사부 장군을 시켜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512).

② 신라 진흥왕(540~576)은 거칠부를 시켜 '국사'를 편찬하였으나 전해지지 않고 있다.

③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687)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689)하기도 하였다.

⑤ 선덕여왕 때 대국통인 자장(590~658) 율사가 주변 9개 민족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막기 위하여 황룡사 9층 목탑 건축을 건의하고, 백제 장인 아버지를 초빙하여 지어졌다고 한다(643~645).

5.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경상북도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에서 발굴 조사 중 그림이 새겨진 직경 5cm 가량의 토제 방울 1점을 비롯하여 금은옥, 화살촉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번 발굴로 이진아시왕을 시조로 이 지역에서 발전한 (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①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 ② 중앙군으로 2군 6위를 설치하였다.
- ③ 9주 5소경의 지방 행정 제도를 두었다.
- ④ 귀족 합의제인 화백 회의를 운영하였다.
- ⑤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정답: ①

* 대가야의 역사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시조 이진아시왕으로부터 도설지왕까지 16대 520년간 존속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가야연맹은 4세기 후반 이후 고구려의 침입으로 큰 타격을 입고 세력이 약화되면서(백제도 위축됨) 신라의 세력권으로 들어갔다.

반면 5세기 이후에는 고령·합천 등 경상도 내륙 산간지방의 농업에 유리한 입지조건과 제철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던 소국 반파국은 5세기 후반에 새로이 시조설화를 만들며 대가야를 표방하며 합천·거창·함양·산청·아영·하동·사천 등지를 포괄하는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로서 국제사회에도 등장하였다.

479년에 가야왕 하지(荷知)의 이름으로 중국 남제에 사신을 보내 작호를 받았고, 481년에는 백제·신라와 동맹하여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진행된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활동의 폭이 매우 제한되었다.

이에 이뇌왕은 신라의 법흥왕과 결혼동맹(522)을 맺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나 크게 패하고, 오히려 562년 신라 진흥왕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대가야는 정치적으로 삼국보다 발전하지 못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가야금을 제작하고 음악을 정리하는 등 높은 문화수준을 보유했다. 또한 지산동 고분을 비롯하여 본관동·중화동·양전동·종암동·괘빈동 등 고령 지역에 분포한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많은 유물들은 가야 연맹의 맹주인 대가야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고려의 중앙군은 국왕의 친위 부대인 2군과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6위로 구성되었다.

③, ④ 신라는 귀족 대표들이 모인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고, 통일 후에는 9주 5소경의 지방제도를 마련하였다

⑤ 백제의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와 8성(진씨, 해씨, 목씨, 사씨, 연씨, 협씨, 국씨, 백씨)의 귀족으로 이루어졌다.

6.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낙랑군을 몰아냈어요.
- ②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어요.
- ③ 장문휴를 보내 등주를 공격했어요.
- ④ 3성 6부의 중앙 관제를 정비했어요.
- ⑤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를 확립했어요.

정답: ③

* 발해 무왕의 업적

7세기 말에 이르러 당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연호: 천통)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들은 전쟁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만주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길림성의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웠다(698).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719~737, 연호 인안) 때에는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 경계를 강화하였고, 흑수부 말갈도 당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발해는 먼저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등주)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732). 이 때 신라는 당의 사주를 받아 김사란을 시켜 발해 남부 국경을 공격하였으나 추위로 실패하였다(733). 이에 발해는 돌궐, 일본(727년 수교)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여 동북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어 문왕(737~793)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3성 6부의 중앙관제를 정비하고,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발해가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긴 것은 이러한 지배 체제의 정비를 반영한 것이다.

이 무렵, 발해는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인안(무왕), 대흥·보력(문왕)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발해는 9세기 전반의 선왕(818~830)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고, 지방제도도 정비하였다(5경 15부 62주).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인들은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그러나 10세기 초에 이르러 부족을 통일한 거란이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해 오고, 발해 내부에서도 귀족들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어 발해의 국력이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애왕(906~926) 때에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926).

① 고구려 미천왕(300~331)은 마지막 한(漢) 군현인 낙랑군(313), 대방군(314)을 완전히 몰아내어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② 백제 성왕(523~554)은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538),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7.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흑치상지가 좌우의 10여 명과 함께 [적읍] 피해 본부로 돌아가
흠어진 자들을 모아 임존산(任存山)을 지켰다. 목책을 쌓고 굳게
지키니 열흘 만에 귀부한 자가 3만여 명이였다. 소정방이 병사들
보내 공격하였는데, 흑치상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아 싸우니
그 군대가 패하였다. 흑치상지가 본국의 2백여 성을 수복하니 소정방이
토벌할 수 없어서 돌아갔다.

612	618	645	660	676	698
(가)	(나)	(다)	(라)	(마)	
실수 대첩	당 건국	안시성 전투	황산벌 전투	기벌포 전투	말해 건국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④

* 흑치상지와 백제 부흥운동

의자왕으로 인한 정치 질서의 문란과 지배층
의 향락으로 국가적 일체감을 상실한 백제
는, 계백의 5천 결사대의 황산벌에서의 항쟁
에도 불구하고 나·당 연합군에 의해 결국 사
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말았다(660).

그러나 각 지방의 저항 세력은 백제 부흥 운
동을 일으켰다. 복신과 도침은 주류성(한산)
에서 흑치상지는 임존성(대흥)에서 왕자 풍
을 왕으로 추대하고 군사를 일으켰다. 이들
은 200여 성을 회복하고 사비성과 웅진성의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을 공격하면서 4년간
저항하였으나,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부흥
운동은 좌절되었다.

이 때, 왜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강 입구까지 왔으나 1천 척 중
400여 척이 불태워지는 큰 패배를 당하여
쫓겨갔다(663).

8.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설계두는 신라 귀족 가문의 자손이다. 일찍이 가까운 친구 4명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면서 각자 자신의 뜻을 말하였다. 설계두가 이르기를,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 데 (가) 을/를 따져서 진실로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그 한도를] 넘을 수가 없다. 나는 원컨대, 중국으로 가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지략을 펼쳐서 특별한 공을 세우고 싶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관직에 올라 고관대작의 옷을 갖추어 입고 천자의 곁에 출입하면 만족하겠다."라고 하였다.

- ① 진대법이 실시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② 원성왕이 인재 등용 제도로 제정하였다.
- ③ 후주 출신인 쌍기의 건의로 실시되었다.
- ④ 권문세족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 ⑤ 집과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정답: ⑤

* 신라 골품제도

신라에는 혈연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는 골품 제도가 있었다. 골품은 신라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의 범위까지 엄격히 제한하였다. 가옥의 규모와 장식 물론, 복색이나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 생활까지 규제하는 기준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또한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골품에 따라 정해져 있었으므로 일찍부터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특히 진골은 관직 상한의 제한이 없어 중앙과 지방의 장관직을 독점하였으나, 바로 아래의 6두품은 6등급이 상한선이어서 가장 불만이 많았다. 그리하여 보기에 나오는 설계두는 6두품 출신으로 621년 몰래 배를 타고 당으로 건너가 당 태종을 도와 큰 공을 세웠고, 안시성 전투(645)에서 전사하자 어의로 시신을 덮어주고 대장군의 관직을 내려주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① 고구려는 고국천왕(179~197) 때 국상을 파소의 건의로 먹을거리가 모자란 봄에 농민들에게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춘대추납) 진대법을 실시하였다(194).

② 통일신라기 원성왕(780~798) 때에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 삼품과(788)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③ 고려 광종(949~975)은 중국 후주 출신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거제(958)를 처음 시행하였다.

④ 고려 공민왕(1351~1374)은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케 하고(1366),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9. 다음 글을 작성한 인물이 활동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신은 나이 12세에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배를 타고 떠날 즈음에 아버지께서 훈계하기를 “앞으로 10년 안에 진사에 급제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가서 부지런히 공부에 힘을 기울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부친의 엄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노력을 경주한 끝에 6년 만에 빈공과에 합격하였습니다. …… 이제 귀국 하여 그동안 중국에서 지은 글을 모아 계원필경집 1부 20권을 비롯한 시·부·표·장 등의 28권을 소장(藏)과 함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 ①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 ②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렸다.
- ③ 원광이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 ④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 ⑤ 김춘추가 진골 출신 최초로 왕위에 올랐다.

정답: ④

* 최치원이 활동하던 신라 하대의 사회상

당의 빈공과 합격, ‘계원필경’ 등을 통해 최치원(857~?)임을 알 수 있고, 활동하던 시대는 신라 하대(780~935)이다.

통일 후 번영을 계속하던 신라는 7세기 후반부터 귀족들의 권력다툼에 휘말리게 되었다. 소수의 진골 귀족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왕과 귀족 사이에, 그리고 귀족들 서로 간에 싸움이 자주 일어났다. 귀족들이 농장을 늘리고 자신의 군대를 키워 서로 다투었지만, 국가는 이를 통제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권력다툼은 혜공왕 때 시작되었다. 혜공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귀족들의 다툼이 시작되어 결국 혜공왕은 살해를 당하였다(대공의 난, 96각간의 난, 김지정의 난). 이로써 통일 직후 지속되던 무열왕계의 왕위 세습이 끊어졌다(780년 선덕왕 즉위: 내물왕계). 이후 신라에서는 왕위다툼이 심해져서 150여 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바뀌는 큰 혼란이 일어나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8세기 후반 이후, 진골 귀족들은 경제 기반을 확대하여 사병을 거느리고 권력 싸움을 벌였다. 중앙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운영되었다. 지방 세력(호족)들도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여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왕실과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나면서 농민에 대한 강압적인 수취가 뒤따랐다.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적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앙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높아지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특히 9세기 말 진성 여왕 때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모순이 증폭되었다. 중앙 정부의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졌으며, 지방의 조세 납부 거부로 국가 재정도 바닥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한층 더 강압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자, 마침내 각지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889)을 시작으로 농민의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 정부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거의 잃어 갔다.

①, ⑤ 신라 중대(654~780)는 김춘추가 진골 출신으로 왕위에 오르며 시작되었고(654), 신문왕 때에는 김흠돌의 반란(681)을 진압하며 귀족들을 숙청하며 왕권을 전제화시켰다.

② 고려 성종(981~997)은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수용하여 유교 중심, 중앙집권적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③ 신라 진평왕 때에 원광(541~630)은 세속 5계를 지어 화랑도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10.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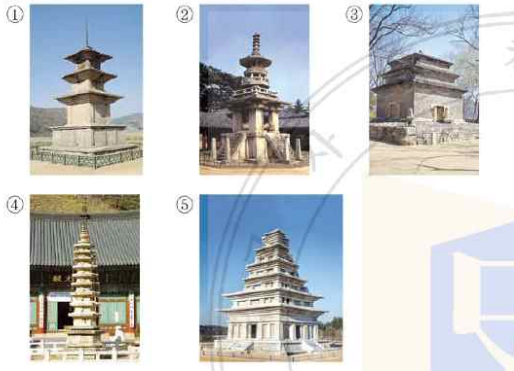
[3점]

사진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탑 ◆ 신라 편



(가)

이 탑은 신문왕 2년에 세워진 것으로, 국보 제112호로 지정된 쌍탑 중 동탑이다. 이 탑은 삼국 통일 이후 조성된 석탑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붕돌, 몸돌 등 각 부분이 여러 개의 석재로 조립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탑이 있는 절은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의 유업을 이어받아 아들인 신문왕이 완공하였다.



정답: ①

* 감은사지 3층 석탑(국보 112호)

경주 감포에 소재. 2층의 기단에 사각형으로 쌓아올린 2개의 석탑으로, 동·서 두 탑이 같은 규모와 구조이다. 많은 석재를 이용한 수법은 백제의 석탑과 같으나, 그것이 목조 탑파를 충실히 모방한 것인데 반해 이 석탑의 조형수법은 기하학적으로 계산된 비율에 따른 것이다.

감은사는 682년(신문왕 2년)에 창건되었으므로(선왕 문무왕이 동해의 용이 되어 왜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염원에 따라 수증릉인 대왕암을 조성하고 인근에 감은사를 지음), 이 탑의 건립도 그 무렵으로 추정되는 오래되고 거대한 석탑이다.

② 경주 불국사 다보탑(국보 20호): 8세기 중엽 통일신라기 경주 불국사에 세워진 탑으로 역사적 부처인 석가여래가 법화경을 설법하자, 과거불인 다보여래가 나타나 석가여래의 말이 참됨임을 입증한 것을 구현한 것이다. 복잡하고 화려한 특징을 보여준다.

③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국보 제30호):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탑으로, 지금은 3 층까지만 남아 있다. 1층 4면에는 감실(龕室)을 만들고 그 좌우에 인왕상을 각각 1구씩 새긴 화강암을 끼웠다. 이 인왕상 조각은 당시 7세기(현존 신라의 탑 중 가장 오래됨) 신라 조각양식을 살피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④ 월정사 8각 9층 석탑: 강원도 평창(오대산) 소재. 통일 신라 때의 4각 3층 석탑을 넘어서 다소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다각다층탑이 고려 전기에 유행하는데 그 전형을 보여 준다. 즉 당시 송나라의 선진문물이 수용되며 송나라에서 유행하던 8각탑이 수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 정림사지 5층 석탑과 함께 7세기 백제 시대의 대표적 석탑. 한국에 남아있는 석탑 중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백제 무왕 때(639년)에 만들어진 백제 석탑의 시원 형식이다. 여러 면에서 한국 석탑 전체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탑만 일부가 남아 있는데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어,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11. 밑줄 그은 '폐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폐하께서 실시한 노비안검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는 노비가 아니었는데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거나 빛 때문에 강제로 권세가의 노비가 된 자들을 일인으로 해방시킨 정책입니다.



- 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②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두었다.
- ③ 민생 안정을 위해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다.
- ④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 ⑤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정답: ⑤

* 고려 광종의 업적

고려 태조 왕건의 뒤를 이은 혜종(943~945)과 정종(945~949) 때에는 왕권이 불안정하여 왕자들과 외척들 사이에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났다(예: 왕규의 난).

이런 상황에서 즉위한 광종(949~975)은 노비 안검법(956)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어 후주 출신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958),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으며, 지배층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960).

일련의 개혁을 통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된 광종은 본격적으로 공신과 호족 세력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를 칭하고,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왕조 성립 초기의 공신과 호족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다.

① 고려 성종(981~997)은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수용하여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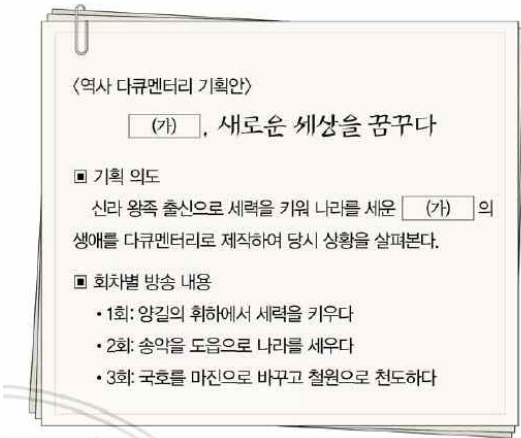
② 고려 공민왕(1351~1374)은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케 하고(1366),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③ 고려 태조(918~943)는 흑창(춘대추납)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고, 이는 의창으로 계승되었다.

④ 고려 숙종(1095~1105) 때에는 주전도감(1101)을 설치하고 해동통보, 삼한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 1101)라는 은전을 만들었다.

12.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후당,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 ② 광평성 등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 ③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 ④ 일리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퇴하였다.
- ⑤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경애왕을 죽게 하였다.

정답: ②

*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

애꾸눈으로 유명한 궁예(?~918)는 신라 왕족의 후예로서, 진표의 미륵신앙을 통해 농민층의 기반을 갖고 있던 궁예는 기현에 투신하였으나, 곧 양강의 휘하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되었다.

처음에는 복원(원주) 지방의 도적 집단을 토대로 강원도, 경기도 일대의 중부 지방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예성강 유역의 황해도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그는 세력이 커지자, 송악(개성)에 도읍을 정하고 독립하여 후고구려를 세웠다(901).

그 후 궁예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기반을 다져,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마진(연호: 무태)로 바꾸었다(904), 다시 태봉(연호: 수덕만세 -> 정개)으로 바꾸며(911) 황제국으로서의 면모와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였다. 궁예는 광평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골품 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 제도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궁예는 계속되는 전쟁을 치르려고 지나치게 조세를 거두어들였고, 죄 없는 관료와 장군을 살해하였을 뿐 아니라, 미륵 신앙을 이용하여 전제 정치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잃어 신하들에 의하여 축출되었다(918).

①, ⑤ 후백제(900)를 세운 견훤은 중국과의 외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오월과 우호관계를 맺었으며 후당이나 거란과도 외교관계를 통해 국제적 지위를 높였으나, 927년 신라의 금성을 급습하여 경애왕을 죽게 하여 적대관계가 되었다.

④ 고려를 936년 일리천(경북 선산)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은 견훤을 축출하고 왕위에 오른 신검의 후백제군을 크게 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③ 신라 말 흥덕왕(826~836) 대에 장보고는 신라 하대의 중앙의 지방 통제력 상실을 이용하여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828) 해적을 소탕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13.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여진이 이미 그 소굴을 잃자 보복하고자 맹세하며, 땅을 돌려 달라는 것을 빌미로 여러 추장들이 해마다 와서 다투었다. 또 개척한 땅이 크고 넓어서 9성 사이의 거리가 아득히 멀고, 골짜기가 험하고 깊어서 적들이 여러 차례 매복하여 오고가는 사람들을 노략질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여 끝내 9성을 여진에게 돌려주었으며, 전쟁에 쓰이는 도구와 군량을 내지(内地)로 옮기고 그 성에서 철수하였다.

- 「고려사」 -

- ① 강감찬이 귀주에서 외적을 격퇴하였다.
- ②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왕을 폐위하였다.
- ③ 이자겸이 금의 사대 요구 수용을 주장하였다.
- ④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 ⑤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정답: ③

* 동북 9성 반환 이후의 역사적 사실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1104, 신기.신보.항마군)이라는 특수 부대를 편성한 다음,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그러나 여진족이 잃은 땅을 돌려주기를 간청하는데다 방비하기도 어려워 9성을 돌려주었다(1109). 이후 여진족은 이후 더욱 세력을 키워 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금을 건국하였으며, 거란을 멸망시킨 뒤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해 왔다. 조정에서는 논란이 치열하게 일어났으나, 당시 집권자였던 이자겸이 금과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1126).

① 강감찬은 거란의 3차 침입 때에, 살아 돌아간 거란 10만의 군사가 겨우 수천에 이를 정도로 대승을 거렸다(귀주 대첩, 1019).

② 고려 목종(997~1009) 때에 천추태후와 정부(情夫)인 김치양이 전횡을 일삼고 그들 사이의 아들을 왕으로 내세우려 하자, 어지러운 고려 왕실을 바로잡고자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는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들어와 정변을 일으키어 천추태후와 김치양을 제거하였다(1009). 그러나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즉위시켜 거란의 2차 침략 구실을 만들었다.

④ 10세기 초에 통일 국가를 세운 거란(요)은 송과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고려를 침략하였다. 처음에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여,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옛 고구려 땅을 내놓고 송과 교류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다(993). 그러나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에 나선 서희가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994).

⑤ 고구려는 당의 침략에 대비하여 영류왕 때에 연개소문을 책임자로 하여 북쪽의 부여성(농안)에서 남쪽의 비사성(대련)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았다(631~647).

14. 밑줄 그은 '정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최근 최충의 9재 학당을 비롯한 사학 12도로 학생들이 모여들어 관학이 많이 위축되었다는군.

자못거 출신들이 세운 사학이 많아 과거 준비에 유리한 모양일세.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학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고 들었네.



- ①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 ②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 ③ 수도에 4부 학당을 두었다.
- ④ 전문 강좌인 7재를 개설하였다.
- ⑤ 경당을 설립하여 학문을 가르쳤다.

정답: ④

* 고려의 관학 진흥책

고려 중기에는 최충(984~1068)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하였다. 사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국자감의 관학 교육은 위축되었다. 이에 정부는 관학 진흥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다.

예종(1105~1122) 때에는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전문 강좌(7재)를 설치하고, 장학 재단(양현고)을 두어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고 궁중 안에 청연각, 보문각, 천장각, 임천각 등의 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를 설치하였다.

인종(1122~1146) 때에는 경사(經史) 6학 제도를 마련하고, 향교 중심의 지방 교육을 강화하였다.

① 통일신라기 원성왕(780~798) 때에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 삼품과(788)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② 조선 후기 정조(1776~1800)는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였다.

③ 조선 태종 때에 한양 재천도(1405) 후, 중등 교육기관으로 5부 학당(->4부학당)을 설치하였다(1411).

⑤ 고구려는 소수림왕(371~384) 때에 수도에 태학을 세워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치고, 장수왕(413~491) 때에는 지방에는 경당을 세워 청소년들에게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다.

15.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3점]

11월에 팔관회가 열렸다. [왕이] 신봉루에 둘러 모든 관료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다음 날 대회(太會)에서 또 술과 음식을 하사하고 음악을 관람하였다. 송의 상인과 탐라국도 특산물을 바쳤으므로 자리를 내주어 음악을 관람하게 하였는데, 이후에는 상례(常例)가 되었다.

- 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 ② 경시서가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
- ③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 작물이 재배되었다.
- ④ 모내기법 등을 소개한 농가집성이 편찬되었다.
- ⑤ 국경 지대에서 개시 무역과 후시 무역이 이루어졌다.

정답: ②

* 팔관회가 성행하던 고려 시대의 경제상

팔관회는 중동(仲冬)인 음력 11월 15일(서경은 10월 15일)에 국가행사로 치러진 도교와 불교 및 여러 토속 신앙이 어우러진 고려 최대의 종교행사였다.

이 행사에는 개경의 고관은 물론 각 지방을 대표하는 관리들이 의식에 참여하였으며, 송, 여진, 탐라 등의 사신과 상인들도 국왕을 알현하고 가져온 조공(선물)을 바쳤다. 특히 각국의 상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개경은 물론, 각지에서 온 귀족들을 대상으로 교역을 하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① 척박한 환경의 고구려는 일찍부터 약탈경제가 이루어져,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를 두었다.

② 고려의 상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개경에 시전을 설치하여 관청과 귀족이 주로 이용하게 하였고, 경시서를 두어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③, ④, ⑤ 조선 후기에는 해외 원산지 작물인 고추, 고구마, 감자 등도 전래되어 구황작물로 재배되었고, 농서로 신속이 왕명을 받아 농상집요(1655)를 간행하였다. 이 책은 농사직설, 금양잡록, 사시찬요초 외에 구황촬요까지 합편으로 들어가 있어 당시로서는 최고의 종합 농업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가 이루어졌다.

16.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힘썼어.
- ②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했어.
- ③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어.
- ④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겼어.
- ⑤ 돈오점수를 주장하며 수행 방법으로 정혜쌍수를 내세웠어.

정답: ⑤

* 선교일치를 추구한 보조국사 지눌

보조국사라 불리우는 지눌(1158~1210)은 고려 무신집권기 초기에 활동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기강이 무너져 하극상 풍조와 농민들에 대한 수탈 심화와 불교의 타락, 그리고 농민, 하층민, 천민, 문신세력 등의 반란이 있는 등 사회가 어지러웠다.

지눌은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였다. 그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송광사에 중심을 둔 수선사 결사 운동은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처럼 조계종은 지눌이 수선사를 열면서부터 매우 흥성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불교계의 중심적인 종파가 되어 많은 승려를 배출하였다.

지눌은 선(禪)과 교(敎)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선도하였다(관련: 권수정혜결사문). 또, 지눌은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여 교와 선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한 지눌의 논리는 고려 불교가 지향하던 선교(禪敎) 일치 사상을 완성한 것이었다.

① 원효(617~686)는 광대들이 큰 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무애가(無碍歌)를 지어 부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나무아미타불만 외쳐도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 정토 신앙) 일반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② 의상(625~702)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여 통일 직후 전제왕권 확립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화엄학의 법계연기(法界緣起) 사상을 서술한 그림시인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系圖)가 유명하다.

③ 고려 중기 의천(1055~1101)은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를 창건하여 (해동)천태종을 창시하였다.

④ 통일신라기 혜초(704~787)는 자신이 돌아본 인도와 중앙 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17.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공주의 겁령구* 등에게 성과 이름을 하사하였는데 홀탈대는 인후로, 삼가는 장순룡으로, 차홀대는 차신으로 하고 관직은 모두 장군으로 하였다. 첨의부에서 아뢰기를, "제국 대장 공주의 겁령구와 관료들이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여 산천으로 경계를 정하고 사패(賜牌)를 받아 조세를 납입하지 않으니, 청컨대 사패를 도로 거두소서."라고 하였다.

*겁령구: 사종인

- ① 서얼이 통정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용천주 도독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 ③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 ④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 ⑤ 망이·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하였다.

정답: ④

* 원 간섭기의 사회상

- 원나라 공주 출신 왕비인 제국대장공주와 그의 사속인인 겁령구, 첨의부 등을 통해 원의 간섭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몽골과 강화한 이후, 고려는 두 차례 실시된 원의 일본 원정에 군대와 물자의 제공을 강요받았다. 또, 철령 이북에 쌍성총관부, 자비령 이북에 동녕부,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라는 원의 통치 기구가 설립되어 넓은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였다.

고려의 국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하여 원 황제의 부마가 되었고, 왕실의 호칭과 격이 부마국에 걸맞은 것으로 바뀌었다(폐하->전하, 태자->세자, ..조.종->충..왕). 아울러 관제도 개편(중서문하성+상서성->첨의부, 6부->4사, 중추원->밀직사)되고 격도 낮아졌다.

원은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정동행성을 계속 유지하여 내정 간섭 기구로 삼았고, 군사적으로는 만호부를 설치하여 고려의 군사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하고 순마소(경찰 기능)를 통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한편, 원은 공녀라 하여 고려의 처녀들을 뽑아 갔으며(결혼도감 주관), 금, 은, 베를 비롯하여 인삼, 약재 등 특산물을 징발하여 농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또, 매를 징발하기 위해서 응방이라는 특수 기관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의 내정 간섭으로 고려는 자주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원의 압력과 친원파의 입성책동으로 인해 정치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사회적으로도 원과 강화를 맺은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자연히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많아졌고, 문물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 사회에는 몽골풍(소주, 설령탕)이 유행하여 변발, 몽골식 복장(호복, 연지, 족두리, 장도), 몽골어(수라, ~치)가 궁중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

① 조선 후기 영·정조 때에 서얼을 어느 정도 등용하자 이들은 집단적으로 상소를 올려 홍문관 같은 청요직으로의 진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순조~철종 때에 대대적인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서얼통정운동).

② 신라 말 헌덕왕(809~826) 때에 아버지 김주원(무열왕계)이 김경신(원성왕계)에게 왕위쟁탈전에 패하자, 그 아들인 응주(공주) 도독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켜(825)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으로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③, ⑤ 최충현의 사노(私奴) 만적이 노비들을 규합하여 신분해방을 부르짖은 만적의 난(1198)과, 망이·망소이 형제에 의해 일어난 공주 명학소의 난(1176)은 모두 고려 무신정권기(1170~1270)에 일어났다

18. 밑줄 그은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 ②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 ③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 ④ 단군왕검의 건국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 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이다.

정답: ④

* 삼국유사

원의 간섭기인 충렬왕 때에 일연이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쓴 '삼국유사'(1281)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신이적(神異的) 사실을 많이 담고 있어 왕력과 함께 기이편을 책의 권두에 두며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다. 특히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왕검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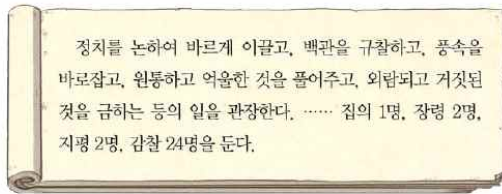
①, ⑤ 고려 중기 인종 때에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사기(1145)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로서, 고려초에 씌여진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세가가 없이 본기·열전·지·표로 구성)로 서술하였다.

② 조선은 국왕이 죽으면 다음 국왕 때 춘추관을 중심으로 실록청을 설치하고 사관이 국왕 앞에서 기록한 사초, 각 관청의 문서를 모아 만든 시정기 등을 종합, 정리하여 실록을 편년체로 편찬하였다.

③ 조선 정조 때에 유득공(1748~1807)은 발해고(1784)를 저술하여 남의 신라와 북의 발해를 남북국 시대라 부를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며 발해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19.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하였다.
- ② 고려의 삼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 ③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되었다.
- ④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 기구로 성장하였다.
- ⑤ 5품 이하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정답: ⑤

* 조선의 언론·감찰 기구 사헌부

고려의 전곡출납과 회계를 담당하는 재정기관인 삼사와는 달리, 조선 시대의 삼사인 사헌부(장관 종2품 대사헌, 주로 백관 감찰, 기강·풍속 정립, 사법권, 경연 담당), 사간원(장관 정3품 당상관 대사간, 주로 국왕에 대한 간언, 신료에 대한 탄핵, 경연 담당), 홍문관(장관 정2품 대제학, 집현전을 계승하여 주로 왕의 자문 및 경연 주관, 경서·사적의 관리, 문한(文翰)의 처리)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정사를 비판하며, 문필 활동을 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특히 사헌부와 사간원은 양사라 하여 대간을 이루고 서경·간쟁·봉박을 담당하였는데, 서경이란 5품 이하 관료에 대한 임면과 법령 개폐시 동의를 얻는 절차이고, 간쟁은 왕께 충언(간언)을 하는 것이고, 봉박은 국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절대 권력을 비판하는 기능으로 인정되었다.

즉, 3사의 언론은 고관은 물론이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한 여러 규정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3사의 기능 강화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시대 정치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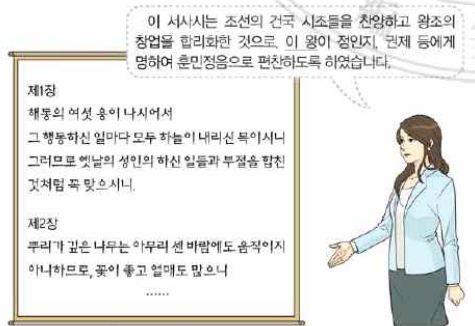
① 한성부는 수도 서울의 행정과 치안, 사법을 담당하였다.

③ 도교 행사인 초제를 주관하는 기관인 소격서는 조선 중종 대 사림의 중심 인물 조광조 등의 건의로 한 때 혁파되기도 하였다.

④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회의기구로 설치된 비변사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점차 상설화 되고, 그 기능도 군사 문제뿐 아니라 외교, 재정, 사회, 인사 문제 등 국정 최고 기구로 성장하였다.

20. 밑줄 그은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① 훈편 교범인 무예도보통지가 편찬되었다.
- ②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다.
- ③ 최초로 100리 척을 사용한 동국지도가 제작되었다.
- ④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간행되었다.
- ⑤ 각 도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다.

정답: ④

* '용비어천가'가 지어진 세종 대의 업적

조선 세종 대(1418~1450)의 가장 큰 업적으로 백성들이 쉽게 글을 쓰고 배울 수 있도록 한글(훈민정음)을 창제(1443)하여 반포하였다(1446). 또한 한글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왕실조상의 덕을 찬양하는 용비어천가(1447), 부처님의 덕을 기리는 월인천강지곡(1449) 등을 지어 한글로 간행 하였다.

세종은 농업을 중시하여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1429). 또한 천문학, 농업과 관련된 각종 기구를 발명, 제작하였다. 천체관측 기구로 혼의와 간의를 제작하고, 시간측정 기구로 물시계인 자격루와 해시계인 앙부일구 등이 만들었다. 자격루는 노비 출신의 과학 기술자인 장영실이 제작한 것으로, 정밀 기계 장치와 자동시보 장치를 갖춘 뛰어난 물시계였다.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만들어(1441) 전국 각지의 강우량을 측정하였다.

세종 때에 천문학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역법이 마련되었다. 세종 때에 만든 칠정산 내외편(1442)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칠정산 외편)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칠정산 내편). 이는 15세기 세계 과학의 첨단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학에서도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하여 향약집성방(1433)을 편찬하고, 의방유취(1445)라는 의학 백과사전을 간행하였다.

① 조선 후기 정조 대에 백동수를 시키어 무예도보통지(1790)를 편찬하여 병법을 정리하였다.

② 광해군 대에 허준이 동의보감(1610)을 펴내 전통의학을 집대성하였다.

③ 조선 후기 영조 대에 정상기(1678~1752)는 100리척을 사용하여 과학적인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1740).

⑤ 세종 대의 <신찬팔도지리지>를 참조하여 성종 대에 인문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1481)이 편찬되었고, 다시 이를 보충한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이 중종 때 편찬되어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21.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자고 요청하니 왕이 따랐다. …… 경기는 사방의 근원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하였다. 무릇 경성에 살며 왕실을 보위하는 자는 현직 여부에 상관없이 직위에 따라 과전을 받게 하였다.

(나) 한명회 등이 아뢰기를, "직전(職田)의 세(稅)는 관(官)에서 거두어 관에서 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대왕 대비가] 전지하기를, "직전의 세는 조세지의 지방관으로 하여금 감독하여 거두어 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①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②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③ 관등에 따라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하였다.
- ④ 개국 공신에게 인품,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 ⑤ 수신전, 홀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하였다.

정답: ⑤

* 조선 시대 토지 제도의 변천

(가) 과전법 실시(1391)

(나) 관수관급제 실시(1470)

과전법(공양왕, 1391): 고려 말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와 토지 겸병으로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자, 신진사대부들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직후 정권을 장악하고 조준 등의 주도 하에 공양왕 3년(1391)에 과전법을 실시하였다. 과전법은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신진관료에게 재분배한 것으로 이후 조선 초기의 근본 토지제도가 되었다. 경기에 한하여 전·현직 관료에게 18등급에 따라 수조권을 부여하였다(1/10).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공신전과 수신전·홀양전 등 일부 세습화 경향이 나타났다.

직전법(세조, 1466): 토지 분급지의 부족 해결, 재정확보와 국가의 토지 지배 강화를 위해 수조권을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하는 제도이다. 토지 지급액을 감소시키고, 수신전·홀양전·군전·공해전 등이 폐지되었다

관수관급제(성종, 1470): 과전법 하에서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관청의 수조권 대행).

① 신라 성덕왕 때에 백성에게 정전(실제로 토지를 분급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본래부터 소유해온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공식적으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조세·공납·역을 수취케 한 토지)을 지급하였다(722).

② 대한제국의 광무개혁(1897~1904) 때에 양지아문(1898)을 설치하여 양전사업을 하며, 지계아문(1901)을 설치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문건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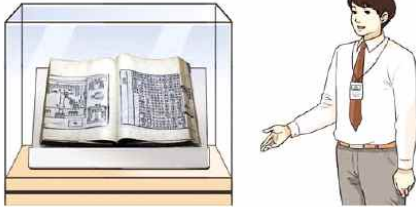
③ 고려는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는 전시과(田柴科) 제도를 마련하였다.

④ 고려 태조 때에 개국 공신과 군인들의 논 공행상 일환으로 인품, 행실,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다(940).

22. (가)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책은 (가) 때 신숙주, 정철 등이 국가와 왕실의 각종 행사를 유교의 예법에 맞게 정리하여 완성한 국조오례의입니다. 국가의 기본 예식인 오례, 즉 제사 의식인 갈례, 관례와 혼례 등의 가례, 사신 접대 의례인 빈례, 군사 의식에 해당하는 군례, 상례 의식인 흉례에 대한 규정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① 경기도에 한하여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 ② 학문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 ③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 ④ 문하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 ⑤ 현량과를 실시하여 신진 사림을 등용하고자 하였다.

정답: ③

* ‘국조오례의’를 완성한 조선 성종의 업적

조선 성종(1469~1494)은 건국 이후의 문물 제도의 정비를 완비하였으며, 경국대전의 편찬을 마무리하여 반포함(1485)으로써 이후 조선 사회의 기본 통치 방향과 이념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조선 왕조의 통치 체제가 확립되었다.

성종의 가장 큰 업적은 여러 국가적 차원의 편찬 작업이 완성되는데, 서거정 등이 삼국 이래로의 시문선집 <동문선>(1478),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1481), 역사서인 <동국통감>(1485)을 편찬하였고, 성현 등은 음악서인 <악학궤범>(1493)을 편찬하였으며, 신숙주 등은 국가의례서인 <국조오례의>(1487)를 완성하였다.

① 공납(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고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공납을 전세화 시킨 대동법이 광해군(1608~1623) 때에 경기도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었다(1608).

② 세종(1418~1450)은 궁중에 집현전을 설치하고(1420) 재주 있는 젊은 학자들을 모아 깊이 있는 학문 연구를 장려함으로써 유교 정치와 민족의 전통 문화를 꽃피웠다.

④ 태종(1400~1418)은 최고 정무기관인 문하부를 혁파할 때 산하의 하급 관료인 낭사는 분리하여 사간원으로 독립시켜 대신들을 자유롭게 비판하게 하였다(1400).

⑤ 중종(1506~1544) 때에 조광조의 건의에 따라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1519).

23.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하였다.
- ②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워 기축봉사를 올렸다.
- ③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십도를 지었다.
- ④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 동호문답을 저술하였다.
- ⑤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조선경국전을 편찬하였다.

정답: ③

* 퇴계 이황에 대하여

성리학이 이기론을 중심으로 조선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내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은 퇴계 이황(1501~1570)과 율곡 이이(1536~1584)였다.

이황은 '주자서절요', '성학십도' 등을 저술하

였으며, 주자의 이론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시켜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의 사상은 주리(主理論)에 입각하여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였고,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리하여 호남의 신진 명유인 기대승(1527~1572)과 인간의 심성과 관련하여 이황과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을 벌였고, 그의 사상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해져 일본 성리학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황은 성학십도(10개의 도표와 해설로 구성)에서 군주 스스로가 성학을 따를 것을 제시하였고, 그의 사상은 유성룡, 김성일 등 영남 남인으로 계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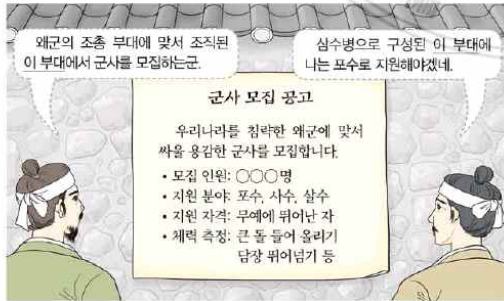
① 정제두(1649~1736)는 몇몇 소론 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그의 학문은 집안의 후손과 인척(이광사, 이금익) 등을 중심으로 하여 계승되어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② 서인의 산림 지도자인 송시열(1607~1689)은 효종 즉위 직후 기축봉사(1649)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며 북벌 운동을 주도하였다.

④ 이이는 이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의 역할을 강조하여 현실적이며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당시 시대를 왕조의 쇠퇴기로 판단하고 1565년 사림 집권 이후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동호문답>에서 통치체제의 정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수미법 주장)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사회경장론).

⑤ 조선 건국 초기에 정도전(1342~1398)은 유교적 통치 규범을 성문화하기 위한 법전의 편찬에 힘써 조선경국전(1394)과 경제문감(1395)을 편찬하였고,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24. 밑줄 그은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 ②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 주축을 이루었다.
- ③ 국경 지역인 북계와 동계에 배치되었다.
- ④ 이종무의 지휘 아래 대마도 정벌에 참여하였다.
- ⑤ 국왕의 친위 부대로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정답: ②

* 훈련도감에 대하여

5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선 초기의 중앙군은 16세기 이후 군역의 대립제가 일반화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임진왜란 초기에 어이없는 패전을 경험한 조정에서는 새로운 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왜군을 물리치는 데 효과적인 편제와 군사 훈련 방식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1593).

훈련도감의 군병은 포수(조총), 사수(활), 살수(창, 칼)의 삼수병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장기간 군무를 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으로서, 의무병이 아닌 직업 군인의 성격을 가진 군인이었다(장번급료병).

① 최씨 무인정권의 사병으로는 도방과 삼별초가 있다. 경대승 정권 때(1179)에 처음 설치된 도방은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 군사적 기반이었고, 삼별초가 조직되자, 공적 임무는 삼별초가 맡게 되고, 도방은 오직 사적 임무인 숙위만을 맡게 되었다.

③ 고려의 지방군은 국경 지방인 양계(북계, 동계)에 주둔하는 주진군과 5도의 일반 군현에 주둔하는 주현군으로 이루어졌다.

④ 왜구의 본거지인 쓰시마섬(대마도) 토벌을 위해, 세종 때(1419)에 상왕 태종의 주도하에 이종무가 수군과 육군을 이끌고 토벌하였다.

⑤ 정조는 친위 부대로 장용영(1793, 도성에 내영, 화성에 외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였다.

25.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최명길의 아뢰기를, “종묘사직의 존망이 호흡하는 사이에 달려 있어 해볼 만한 일이 없으니, 청컨대 혼자 말을 타고 달려가서 적장을 보고 꺼닭 없이 군사를 발동하여 물래 깊이 쳐들어온 뜻을 문겠습니다. 오랑캐가 만일 다시 신의 말을 듣지 않고 신을 죽인다면 신은 마땅히 말발굽 아래에서 죽을 것이요, 다행히 서로 이야기가 되면 잠시라도 그들의 칼날을 멈추게 할 것이니, 한성 가까운 곳에서 방어할 만한 땅은 남한산성만 한 데가 없으니, 청컨대 전하께서는 [도성의] 수구문을 통해 나가신 후 서둘러 산성으로 옮기시어 일의 추이를 보소서.” 라고 하였다.

—「연려실기술」—

- ① 삼별초의 이동 경로를 찾아본다.
- ② 통신사의 활동 내용을 살펴본다.
- ③ 위화도 회군의 결과를 알아본다.
- ④ 계해약조의 체결 과정을 조사한다.
- ⑤ 삼전도비의 건립 배경을 파악한다.

정답: ⑤

* 병자호란과 삼전도의 굴욕

인조반정(1623)을 주도한 서인정권은 명·청 교체기의 상황 속에서 중립외교 정책을 펼치던 광해군 때와는 달리 명을 가까이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친명배금)을 펴서 후금의 경계심을 사게 되었다. 마침 조선에서 이괄의 난이 일어나 사회가 혼란해지자, 후금의 군대가 이를 틈타 압록강을 건너 황해도 지역까지 쳐들어왔다(정묘호란, 1627). 그러나 당시에는 후금의 군사력이 조선을 무력으로 정복할 정도는 아니어서 일단 화의를 맺고 되돌아갔다.

그 후, 국력이 더욱 커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을 압박하여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 왔다. 조선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청의 태종은 10여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다시 쳐들어왔다(병자호란, 1536.12).

청군은 의주 부윤 임경업이 굳건히 지키는 백마산성을 우회하여 10여일 만에 서울에 이르렀다.

서울이 청군에 의해 점령되자, 인조는 본래 강화도로 대피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45일간 항전하였다. 주화파(최명길)와 주전파(김상헌) 간의 논쟁 끝에 결국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를 맺었고(三顧九饋: 세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이마를 조아리는 절), 이 때 ‘대청황제공덕비’라는 제목으로 만주어, 몽골어, 한자로 씌여진 삼전도비가 현재 남아있다.

①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는 개경환도(1270)에 반대하여 배중손, 김통정 등을 중심으로 강화도→진도→제주도 등에서 대몽 항쟁을 계속하다 여몽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1273).

② 일본은 임진왜란 후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에도 막부의 쇼군(將軍)이 바뀔 때마다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조선에 사절의 파견을 요청해 왔다. 이에 조선에서는 1607~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③ 고려 말 우왕 때에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자, 최영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성계는 4불가론을 주장하며 위화도에서 회군하여(1388) 최영을 제거한 뒤,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여 본격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④ 세종 때에 왜구들이 평화적인 무역 관계를 요구해 오자, 남해안의 부산포, 제포(진해), 염포(울산) 등 3포를 개방하였고(1426), 계해약조(1443)를 통하여 무역을 허용하고, 제한된 범위(세건선 50척, 세사미두 200석)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

26.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사림과 훈구의 갈등이 원인이 되었다.
- ② 서인과 남인 사이에 발생한 전례 문제이다.
- ③ 복인이 정국을 주도하던 시기에 전개되었다.
- ④ 외척 세력인 대운과 소운의 대립으로 일어났다.
- ⑤ 동인이 남인과 복인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②

* 예송 논쟁

인조 반정 이후 현종 때까지는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과 연합하여 공존하는 구도가 유지된 채 봉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현종(1659~1674)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예송은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1659년 효종의 사망 시(기해 예송)와 1674년 효종 비의 사망 시(갑인 예송)에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이 때 인조의 계비 자의 대비의 복제가 쟁점이 되었다.

서인(송시열, 송준길)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1년설(기해)과 9개월(갑인)설을 주장하였고, 남인(허목, 허적, 윤휴, 윤선도)은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3년설(기해)과 1년설(갑인)을 각각 주장하여 대립하였다.

기해 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하였지만, 갑인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하였다.

① 성종 대 이후 중앙으로 진출한 사림 세력의 성장에 따라 훈구 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연산군 때의 무오사화(1498), 갑자사화(1504)와 중종 때의 기묘사화(1519), 명종 대의 을사사화(1545) 등이 발생하여 사림 세력은 큰 타격을 받았다.

③ 복인이 집권하던 시기는 광해군(1608~1623) 때이다.

④ 명종 때에 왕위 계승을 놓고 외척인 소운(윤원형)과 대운(윤임)간의 권력 싸움에 사림이 연루되는 을사사화(1545)가 일어나 큰 희생을 당하였다.

⑤ 선조 때에 기축옥사(1589, 정여립 모반 사건 관련 동인에 대한 옥사)의 주역 서인 정철(세자 건저 문제로 몰락)의 처벌을 놓고서 1591년에 강경론인 복인(조식 계열)과 온건론인 남인(이황 계열)으로 분화되었다.

27.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계를 정비하였다.
- ②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하였다.
- ③ 동국문헌비고를 간행하여 역대 문물을 정리하였다.
- ④ 균역법을 실시하여 군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 ⑤ 탕평비를 건립하여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고자 하였다.

정답: ②

* 청계천을 준설한 영조의 업적

영조(1724~1776)는 정치적 조정력을 통해 어느 봉당이든 간에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영조는 먼저, 봉당을 만드는 자는 영원히 정치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노론의 장기 집권에서 오는 폐단을 막고자 노론의 강경파를 몰아 내고 소론과 남인의 온건파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펼쳐 나갔다. 그리고 영조는 탕평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한양의 성균관에 봉당간의 다툼을 금하는 탕평비를 세웠다(1742).

탕평책의 실시로 소론과 남인이 진출하게 되면서 노론의 독주가 어느 정도 견제되었으며, 봉당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왕권도 강화되어 갔다.

영조는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먼저,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균역법(1750,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줌)을 시행하고 국가 재정을 개혁하였다. 또, 형벌 제도를 완화하여 지나친 형벌이나 악형을 금지하고, 신문고를 부활하여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법전인 '속대전(1746)', 의례서인 '속오례의(1744)', 역대문물을 정리한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1770)' 등을 편찬하여 문물제도를 정비하였다. 서울 도성과 관련해서는 준천사를 설립(1760)하여 청계천을 준설(1760~1773)하여 수해를 방지코자 하였다.

② 광해군(1608~1623) 때에 일본 대마도주와 기유약조(1609)를 체결하여 세견선 20척, 세사미 100석 이내의 범위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

28.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중국의 재산이 풍족할 뿐더러 한 곳에 지체되지 않고 끝코루 유통함은 모두 수레를 쓴 이익일 것이다. …… 평안도 사람들은 감과 꿀을 분간하지 못하며, 바닷가 사람들은 멸치를 기름으로 밭에 내건만 서울에서는 한 움큼에 한 톨씩 하니 이렇게 귀함은 무슨 까닭인가. …… 사방이 겨우 몇천 리 밖에 안 되는 나라에 백성의 살림살이가 이다지 가난함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수레가 국내에 다니지 못한 까닭이라 하겠다.

-『열하일기』-

- ①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풍자하였다.
- ②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강조하였다.
- ③ 광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 ④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 ⑤ 색경에서 담배, 수박 등의 상품 작물 재배법을 소개하였다.

정답: ①

* 열하일기를 저술한 박지원에 대하여

조선 후기인 18세기 후반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주장하는 실학자가 나타났다.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이용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들을 이용후생학파 또는 북학파라고도 한다.

대표적 인물인 연암 박지원(1737~1805)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허생전, 양반전, 호질 등의 소설 등을 통해 양반 문벌 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② 중상적 실학자인 박제가(1750~1805)는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특히 우물물 비유를 통하여 적절한 소비를 강조하였다.

③ 중농적 실학자인 이익(1681~1763)은 ‘성호사설’ 광우록에서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론으로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④ 상공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인 유수원(1694~1755)은 우서를 저술하여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강조하고,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⑤ 17세기에 박세당(1629~1703)은 <색경>을 지어 곡물 재배법 이외에 채소, 과수, 화초 재배법, 목축, 양잠기술을 소개하여 농업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29. 밑줄 그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이곳은 강화도의 용흥궁으로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
았던 곳이다. 농사를 짓던 그는
현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안동
김씨인 순원 왕후의 영향력으로
왕위에 올랐다. 그는 순원 왕후의 수렴청정을 받고, 김문근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안동 김씨의 세도에 놀려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소수의 외척 가문이 비변사의 요직을 독점하여
권력을 장악한 이 시기에 왕권이 약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 ① 이양선의 출몰을 보고하는 수군
- ② 군정의 문란으로 고통 받는 농민
- ③ 삼정이정청 설치를 건의하는 관리
- ④ 조선통보를 주조하는 관청 소속 장인
- ⑤ 왕조의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을 읽고 있는 양반

정답: ④

* 세도정치기(1800~1863)의 사회상

- 안동 김씨의 왕후, 철종(1849~1863) 등을 통해 세도정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 세도정치기에는 왕권이 약화된 것은 물론 봉당정치와 관련된 탕평파와 반탕평파 같은 정치 집단 사이의 대립적인 구도도 없어지고, 중앙 정치를 주도하던 정치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며 그 기반이 축소되고, 권력 구조에서도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고, 그 아래의 관리는 언론 활동 같은 정치적 기능을 거의 잃은 채 행정 실무만 맡게 되었다.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잡았으며, 유력한 가문 출신의 몇몇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지방 사족을 배제한 채 수령이 절대권을 갖고 향리와 향임을 이용하여 조세를 걷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부정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었다. 더구나 자연 재해가 잇따라 기근과 질병이 널리 퍼지고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농민의 조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져 농촌 사회의 불만은 극에 달하였다. 즉 전정, 군정, 환곡의 삼정의 문란이 극심하였다.

그리하여 비기, 도참 등을 이용한 예언 사상이 유행하였다. 말세의 도래, 왕조의 교체, 변란의 예고 등 근거없는 낭설이 횡행하여 민심을 혼란시켰다. 정감록은 이 때에 널리 유행한 비기였다. 여기에 무격 신앙이나 미륵 신앙도 점차 확장되어 갔다. 외적으로도 서양의 이양선까지 연해에 출몰하자, 민심은 극도로 흥흥해져 갔다.

한편, 농민들은 지배층의 압제에 대하여 종래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과 대결하였다. 처음에는 벽서, 과서 등의 형태로 나타나던 농민의 항거는 점차 농민 봉기로 변화되어 갔다. 1811년 홍경래의 난을 시작으로 해서, 1862년 임술농민 봉기에 극에 달하였다. 이 때 민란의 원인인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고자 박규수의 건의에 따라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으나,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하였다.

④ 고려 말(1391)에 등장하여 유통되던 지폐인 저화는 가치가 날로 떨어져서 화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자 조선 세종 때(1423)에 그 보완책으로 조선통보가 주조되었으나 유통이 부진하였다.

30. 다음 특별전에 전시된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기획 전시

단원 특별전

우리 미술관에서는 풍속화, 산수화, 기록화, 초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긴 단원의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옥순봉도
자화상

- 기간: 2019년 ○○월 ○○일 ~ ○○월 ○○일
- 장소: △△미술관



정답: ③

* 단원 김홍도의 미술 작품

보기의 '옥순봉도'를 그린 단원 김홍도 (1745~?)는 도화서 출신으로 본래 진경산수화로 시작하였다. 옥순봉은 충북 단양의 8경 중 하나로 죽순이 솟아 오른 듯한 바위의 모습을 잘 표현하였다.

그는 산수화, 기록화, 신선도 등을 많이 그렸지만, 정감어린 풍속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발갈이, 추수, 씨름, 서당 등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소탈하고 익살스러운 필치로 묘사하였다.

① '파적도(破寂圖)' 또는 '야묘도추(野猫盜雛)': 조선 후기 도화서 출신의 풍속화가 금재 김득신(1754~1822)의 그림으로 해학성이 풍부하다.

② 신사임당의 '초충도(草蟲圖)': 16세기 작품. 8폭의 유색 병풍으로, 각 폭마다 각기 다른 초화와 벌레를 그렸기에 초충도라고 부른다. 한결 같이 단순한 주제, 간결한 구도, 섬세하고 여성적인 표현, 산뜻하면서도 한국적 품위를 지닌 색채감각 등이 특징이다

③ 김홍도의 '벼타작': 열심히 일을 하는 소작농들과 한가한 마름(지주가 보낸 관리인)의 모습이 대비적이다.

④ 인왕제색도: 조선 후기에 진경 산수화를 개척한 화가인 정선(1676~1759)의 대표작. 인왕산 바위의 대담한 배치와 산 아래 낮게 깔린 구름, 농묵(濃墨)의 수목이 배치된 짜임새 있는 구도가 특징적이다.

⑤ 세한도(歲寒圖):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북경에서 귀한 책을 구해다 준 제자 이상적의 인품을 송백(松柏)의 지조에 비유하며 그 답례로 그려준 그림. 일체의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최소한의 먹만으로 빈집과 노송, 세 그루의 잣나무를 그렸다.

31. (가) 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나라 안의 서원과 사묘(祠廟)를 모두 철폐하고 남긴 것은 48 개소에 불과하였다. 만동교는 철폐한 후 그 황묘위판(皇廟位版)은 복원*의 대보단으로 옮겨 봉안하였다. 서원을 창설 할 때에는 매우 좋은 뜻으로 시작하였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날로 폐단이 심하였다. 그러므로 서원 철폐령을 내린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그 일이 (가) (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해서 모두 비방할 일은 아니다.

*복원: 창덕궁 급원

- 「대천야록」 -

- ① 나선 정벌을 위해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 ②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 ③ 신유박해로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처형하였다.
- ④ 대전통편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⑤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정답: ⑤

* 흥선 대원군의 정책

흥선 대원군(1863~1873년 집권)은 왕조의 위기를 극복하고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즉,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하고, 경복궁을 중건하고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정치)와 삼군부(군사)의 기능을 회복하였으며 대전회통의 편찬 등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농민 봉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정을 개혁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은결을 색출하여 전정을 바로잡고, 군역 제도를 양반에게도 군포 부과하는 호포제(동포제)로 개혁하고, 환곡제를 사창제(면민의 공동출자 운영)로 개혁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영조의 서원 개혁 정책을 참조하여 서원 정리를 단행하였다. 원래 서원은 선현에 대한 봉사와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면세와 면역의 혜택을 누려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제사 비용의 명목 등으로 백성을 수탈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흥선 대원군은 사액서원 중 47개소만 남기고 노론의 정신적 지주였던 만동묘와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였다(1871).

대외적으로는 서구 열강의 통상수교 요구를 거부하였다. 병인년 천주교 박해로 일어난 병인양요(1866)에서 프랑스군을,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로 인해 일어난 신미양요(1871)에서는 미군을 물리치고,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다(1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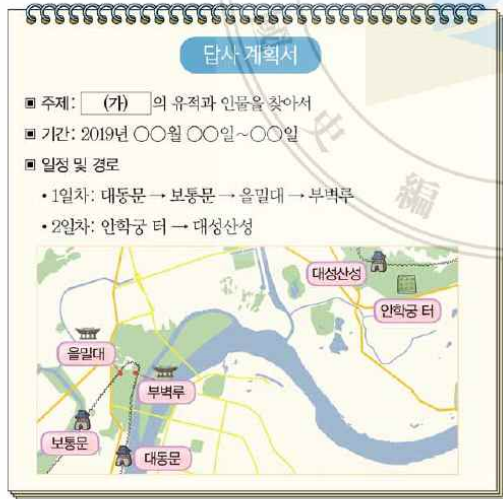
① 효종(1649~1659) 대에 러시아가 흑룡강 쪽으로 청을 침공해 오자, 청은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두 차례(1654~변급, 1658~신유)에 걸쳐 조총 부대를 출병시켜 큰 전과를 올렸다(나선정벌).

② 숙종 때에 청과 간도지역의 경계를 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1712).

③ 순조 즉위 직후 신유박해(1801)가 일어나 이승훈, 정약종, 주문모(중국인 신부) 등 300여 명의 천주교 신도가 처형당하고, 정약전, 정약용 등이 유배를 당하였다.

④ 정조 때에 왕조의 통치 규범을 전반적으로 재정리하기 위하여 대전통편(1785)을 편찬하였다.

32.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② 안창호가 민족 교육을 위해 대성 학교를 설립하였다.
- ③ 고무 공장 노동자 강주룡이 노동 쟁의를 전개하였다.
- ④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관민들에 의해 불태워졌다.
- ⑤ 조만식 등을 중심으로 조선 물산 장려회가 결성되었다.

정답: ①

* 평양의 근현대 역사

평양은 옛 고조선과 고구려(안학궁)의 후기 수도이자 고려 때에는 북진정책의 일환으로 중시되어 서경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개경과 유사한 중앙부서의 본소를 설치하는 제도인 분사제도를 실시하였다.

평양성은 대동강이 S자형으로 흐르는 북쪽에 있으며, 고구려시대에 초축하였고 고려 초에 다시 고쳐 쌓았으며, 조선시대에도 계속 수 개축을 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모란봉, 을밀대, 만수대, 보통문 등의 경관이 유명하다.

흥선 대원군의 집권기 때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이곳에 와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실패하자 배에서 내려 민가를 약탈하고 관리를 잡아 가두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분노한 평양의 관민은 제너럴셔먼호를 불살라버렸고(1866.8 제너럴셔먼호 사건), 후일 신미양요의 빌미가 되었다.

애국계몽운동 시기에는 신민회를 주도한 안창호가 이곳에 대성학교(1908)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시켰다.

일제시대에는 1920년부터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하여 국산품애용 운동인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였고, 여성노동자 강주룡(1901~1932)은 1931년 평양 고무공장 파업 때 을밀대 지붕 위에서 투쟁하였다.

① 최초의 서양식 건축기법으로 지어진 (1900~1910) 서울의 덕수궁 석조전에서 1946~1947년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33. 밑줄 그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방곡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 ②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하는 근거가 되었다.
- ③ 외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 ④ 부산 외 2곳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⑤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여 부당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정답: ④

* 강화도 조약

1873년에 고종의 친정으로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 세력이 집권하면서 개항과 통상 무역을 주장하는 집단이 정치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일본은 한반도 침략을 노리며 운요호 사건(1875)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나라의 문을 열었다(1876.1, 대표: 신현 vs 구로다 기요타카).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부산 및 다른 두 곳(원산, 인천)을 개항해야 했으며, 일본에 치외법권(영사재판권)과 해안 측량권 등을 내준 점에서 불평등 조약이었다.

① 1883년에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에는 관세권 설정과 함께 방곡령과 최혜국대우 조항을 포함하였다.

② 러일전쟁 중에 일본은 조선과 제1차 한·일 협약(1904.8)을 체결하여 외교(스티븐슨), 재정(메가타) 등 각 분야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을 두어 한국 내정을 간섭하였다.

③ 서양 열강 가운데 처음 체거한 조미수호 통상조약(1882.5)에서는 최초로 최혜국 대우(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자동 부여) 조항을 규정하였다.

⑤ 일제의 강요로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조약(1905.11)이 체결된 후,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1907.7)가 열리자, 비밀리에 특사(이준, 이상설, 이위종)를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무효를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였으나, 발각이 되어 강제퇴위 당하였다.

34.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가)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아문을 설치하는 일에 대해서 이미 연석에서 하교하였으나..... 신들이 충분히 상의한 다음 설치하기에 합당한 것을 절목으로 써서 드립니다."라고 하니 [왕이] 알았다고 답하였다. 【절목】 1. 아문의 호칭은 통리기무아문으로 한다.

(나) 대원군에게 군국사무를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대원군은 궐내에서 거처하며 5군영의 군사 체도를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려 군량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난병들은 물러가라는 명을 내리고 대사면령을 내렸다.

(다) 민영익이 우영사로서 우정국 낙성연에 참가하였다가 흥도 여러 명이 휘두른 칼에 맞아 당상 위로 돌아와 쓰러졌다. 왕이 경우궁으로 거처를 옮기자 각 비빈과 동궁도 황급히 따라갔다.

(라) 김윤식이 영국 총영사 아스톤에게 거문도를 점거한 지 3개월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조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므로 속히 섬을 점거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나) - (가) - (다) - (라) ④ (나) - (가) - (라) - (다)
 ⑤ (다) - (나) - (가) - (라)

정답: ①

* 개항기 사건의 연대기

(가) 강화도 조약(1876) 이후 고종은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군국기무와 대외교섭)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1880.12) 그 아래에 12사를 두어 외교.통상.재정.군사 등의 업무를 맡게 하였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 종래의 5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의 2영으로 통합 개편하는 한편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신설하였다(1881).

(나) 신식군대 별기군에 비해 차별대우 받던 구식군대의 군인들은 폭발하여 선해청을 습격하며 임오군란을 일으켰다(1882.6). 난병들이 궁궐에까지 침입하자 민비는 종적을 감췄고(장호원 피신) 고종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흥선 대원군에게 정권을 맡겼다. 흥선 대원군은 통리기무아문과 별기군, 무위영, 장어영을 폐지시키고 기존의 5영 군제로 복귀시켰다.

(다) 임오군란 후 청의 내정 간섭과 집권 민씨 세력(사대당)의 소극적인 개화정책에 불만을 품은 김옥균·서재필·서광범 등의 급진 개화파(독립당) 세력들은 일본의 군사적 지원과 함께 1884년 12월 홍영식이 총판으로 있던 우정국 낙성연회를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이들은 창덕궁에 있던 고종을 경우궁으로 옮겨 일본군의 호위를 받도록 하였고, 민씨 정권의 고관들을 죽이고 새 내각과 개혁정당을 발표하였다(갑신정변).

(라) 갑신정변(1884.12) 이후 청·일본·러시아·영국 등이 조선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면서 국제적 긴장이 높아졌다. 조·러 밀약설에 긴장한 영국은 1885년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이에 조선은 영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청도 러시아와 일본이 이를 핑계로 조선에 파병할 것을 염려하여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러시아는 영국군이 철수하더라도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영국군은 1887년에 거문도에서 물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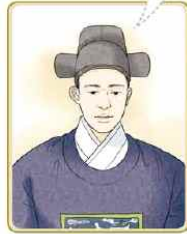
35. (가), (나)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나는 (가) (으)로서 학병과 기술자를 안송하여 청으로 가서 전기, 화학 등 선진 과학 기술을 배우게 하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관한 일을 이용장과 협의하였습니다.



나는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달례와 양국의 친선을 위해 파견된 (나)의 전권대신으로 홍영식, 서광범 등과 미국 대통령 아서를 접견하고 국서와 신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① (가) - 귀국할 때 조선책략을 가지고 들어왔다.
- ② (가) -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 설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③ (나) - 보고 들은 내용을 해동제국기로 남겼다.
- ④ (나) - 해국도지, 영한지략을 들여와 국내에 소개하였다.
- ⑤ (가), (나) - 압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정답: ②

* 영선사와 보빙사

개항(1876, 강화도 조약) 직후 그 후속 조치로 김기수(1876)와 김홍집(1880, 귀국 때 조선책략 갖고 옴)을 일본에 수신사(공식 외교 사절)로 파견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발전된 모습을 국왕에게 보고하였고, 개화 정책 추진기구인 통리기무아문(1880)을 설치하고, 통리기무아문은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근대적 행정 기구의 운영과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조사(朝士) 시찰단을 파견하였다(1881).

조사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등 모두 62명으로 구성된 이 시찰단은 당시 개화반대 여론으로 인해 압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어 일본 정부 각 기관의 사무를 조사하고 산업·군사 등 근대적 시설을 두루 살펴보았다. 또, 미국과의 수교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으며, 개항에 대비하여 세관 사무를 조사하였다.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개화 정

책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이 되었다.

귀국 후 일행의 대부분은 통리기무아문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일부는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되어 근대적 학문과 기술을 익혔다(유길준, 윤치호).

통리기무아문은 영선사 김윤식을 청나라에 보냈다. 그는 38명의 학생과 기술자들을 이끌고 텐진 기기국에 가서 서양의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배웠다(1881). 하지만 학생들의 근대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여,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1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세워졌다(1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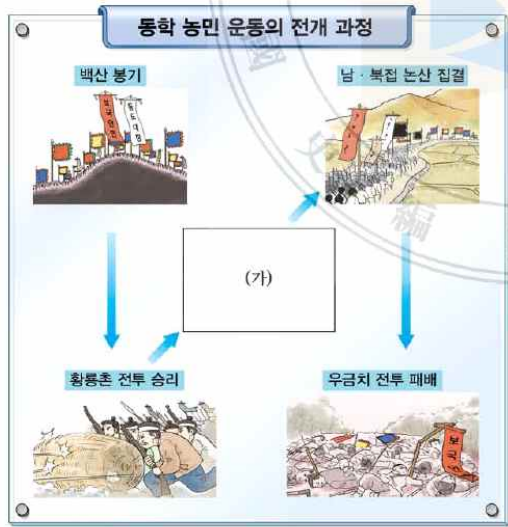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1882.5)에 따라 조선 주재 미국 공사가 파견되자 답례로 정부는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였다(1883).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등이 이끄는 보빙사 일행은 서양 국가에 파견한 최초의 사절단으로 40여일의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박람회, 병원, 신문사, 육군사관학교 등을 시찰하였다.

③ 조선 초기 세종 때(1443)에 통신사 서장관으로서 일본을 방문했던 신숙주(1417~1475)는 일본국과 유구국(오끼나와)에 대한 정보를 담은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여 성종 때(1471)에 간행하였다.

④ 통상개화론자인 오경석은 1853~1859년 여러 차례에 걸쳐 연행사 통역관으로 청을 왕래하면서 <해국도지>, <영한지략> 등의 서적을 가져와 서양 문물을 소개하였다.

36.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다.
- ②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가 개최되었다.
- ③ 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에게 승리하였다.
- ④ 사태 수습을 위해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 ⑤ 전봉준이 농민들을 이끌고 고부 관아를 습격하였다.

정답: ①

*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 온 동학교도들은 교세가 확장되고 농민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이용하여 공주, 삼례, 서울, 보은 등에서 집회를 갖고, 동학에 대한 박해를 중지할 것과 교조 최제우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줄 것을 요구하였다(교조신원운동: 1892~1893).

동학 농민 운동은 1894년 2월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다. 녹두장군이라 불리우는 전봉준(1854~1895)을 중심으로 한 농민층은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맞서 봉기(고부 봉기)하여 관아를 일시 점령하였으나 후임 군수 박원명의 회유에 의해 해산하였다.

그러나 안핵사 이용태에 의한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여 4월 보국안민(나라를 도와 백성을 편안케 한다)과 제폭구민(부패한 관리를 제거하여 백성을 구한다)을 내세우며 다시 봉기하였다(1차 봉기: 무장 기포 -> 백산 봉기). 이후 황토현(5.8), 황룡촌(5.25)에서 정부군에게 승리하며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한편 정부의 요청에 의해 청군이 출동하고 텐진조약에 의해 일본군도 출동하자, 6월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화약을 맺고 폐단이 많은 정치를 개혁하기로 합의하였다(전주화약).

이후 농민군은 전라도 53개 군에 자치행정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실천해 나갔다(전봉준-전라우도, 김개남-전라좌도 관할).

그러나 7월 일본군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경복궁을 점령하며 내정을 간섭하자,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은 10월 다시 봉기(2차 봉기: 삼례 집결)하여 남접(전봉준:전라도)과 북접(손병희:충청도)의 농민군이 연합부대를 형성하고(11월 초, 논산에 대본영 설치), 외세를 몰아내기 위하여 서울로 진격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파견된 우세한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농민군은 12월 공주 우금치에서 패하고,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37. 밑줄 그은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단발령의 시행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
- ② 민중식이 이끈 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 ③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④ 의병 부대가 연합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⑤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정답: ①

* 을미의병

일본의 침략에 맞선 강력한 저항은 의병 활동으로 나타났다. 최초의 의병은 을미사변(국모시해)과 단발령을 계기로 시작된 을미의병(1895~1896)이었다. 유인석(제천), 이소응(춘천) 등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주도하고 농민들이 가담한 을미의병은 아관 파천 이후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치가 내려지자 대부분 스스로 해산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활빈당에 가담하여 반침략 반봉건 투쟁을 이어나갔다.

의병 항쟁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조약을 전후하여 다시 일어났다(1905~1906, 을사의병). 이 때 현직 관리인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하며 기폭제가 되었다. 전직 관리 출신인 민종식은 충청도 홍주성 일대를 무대로 전과를 올렸으며, 흥선 대원군 하야 상소와 개항 반대 상소로 유명한 최익현은 전라도 태인에서 임병찬 등의 제자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쓰시마 섬에서 순절하였다. 특히 경상도 일월산을 거점으로 활동한 신돌석은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서 3천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여 큰 전과를 올렸다.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인한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부속 밀약에 의거한 군대 해산으로 인하여 정미의병(1907~1908)이 일어났다.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여 조직력과 화력이 강화되어 단순한 의병운동이 아닌 조직적인 의병전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13도의 의병이 총 합류하여(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각국 공사관에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통보하고 서울로 단번에 진공하는 서울진공작전(1908)을 추진하였으나 지도부의 문제(부친상을 당한 총대장 이인영의 낙향과 신돌석, 홍범도 등의 평민 출신 의병장 배제)로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의병 전쟁은 이후 각 지역별로 활발히 이루어져, 북부 지역에서는 북간도와 연해주에서 두만강을 도하하여 국내로 진공하려는 이범윤, 안중근의 연추 의병 부대(1908.7~9)와 이에 호응하려는 삼수, 갑산 일대의 포수 출신 홍범도, 차도선 부대의 활약이 있었다. 한편 남한에서는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나 일제가 벌인 1909년의 대규모 군사 작전(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점차 약해졌다. 이에 의병 부대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여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과 독립군 활동을 전개하였다.

⑤ 1910년대 대표적인 국내 비밀결사 조직으로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에 따라 의병을 모아 1912년 조직한 독립 의군부는 독립군을 길러 일제를 몰아내어 대한제국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복벽주의). 일본 정부와 총독부에 국권반환요구서 제출을 시도하다 발각되어 해체되었다(1914).

38.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11월 4일 밤, 조병식 등은 건의소청 및 도약소의 잡배들로 하여금 광화문 밖의 내국 조방 및 큰길가에 익명서를 붙이도록 하였다. 익명서는 “(가) 이/가 11월 5일 본관에서 대회를 열고,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이상재를 내무대신으로 임명하여 나라의 체제를 공화정치 체제로 바꾸려 한다.”라고 꾸며서 폐하께 모함하고자 한 것이다.

-『대한계년사』-

- 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 ②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에 반대하였다.
- ③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계몽 서적 출판을 위해 태극서관을 설립하였다.
- ⑤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하였다.

정답: ②

* 독립협회

고종의 아관파천(1896.2~1897.2)으로 국가의 자주성은 손상되었고, 광산, 삼림 등에 대한 열강의 이권 침탈도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화파 인물인 서재필 등은 최초의 민간신문이자 한글신문인 독립신문(1896.4)을 창간하여 서구의 자유 민권 사상을 소개하였으며, 독립협회를 창립하였다(1896.7).

독립협회는 자주독립의 상징인 독립문 건설을 주도하고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민중에게 근대적 지식과 국권·민권 사상을 고취시켜, 광범한 사회 계층의 지지를 받는 단체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 저지 등을 비롯한 열강의 이권을 막고 자주국권, 자유민권 등을 달성하려는 정치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위해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만민공동회와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하였고, 고종은 이를 수락하였다(1898.11).

그러나 독립협회의 활동은 의회의 설립과 서구식 입헌군주제 실현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조병식 등의 보수 세력과 대립하여 이들로부터 공화제를 추진한다는 모함을 받았다.

결국, 보수 세력이 동원한 황국협회의 방해를 받고,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말았다(1898.12).

① 보안회는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반대운동을 벌여 이를 저지시켰다(1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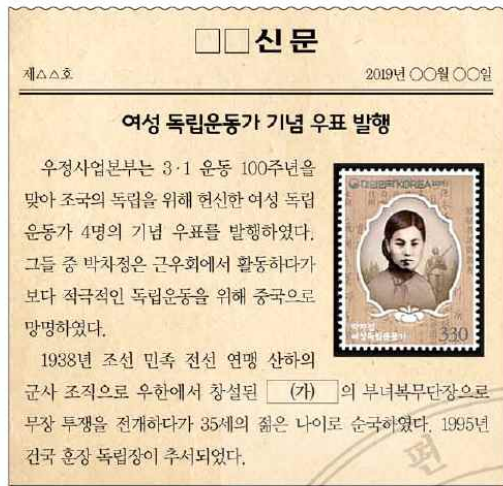
③ 대한자강회는 고종 황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가 해산되었다(1907).

④ 신민회(1907~1911)는 민족자본 형성을 위해 산업으로는 평양에 자기회사와 출판회사인 태극서관 등을 설립하였다.

⑤ 국민의 모금으로 나라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 대구 광문사의 서상돈, 김광제 등의 주도하에 시작되어, 이후 국채보상기성회를 중심으로 각종 계몽운동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 단체들이 참여하며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3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총사령 양세봉의 지휘 아래 활동하였다.
- ②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 ③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④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 ⑤ 중국 관내(關內)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정답: ⑤

* 조선의용대

박차정(1910~1944): 일찍이 여성단체인 근우회(1927~1931)의 임원으로 활약하여 옥고를 치루었고 의열단을 이끈 김원봉의 부인으로, 조선의용대 복무단장으로 곤륜산 전투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나 전투의 부상 후유증으로 해방 1년 전에 순국하였다.

<조선의용대>

1935년 중국 관내에서 민족유일당으로 형성된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 민족 혁명당은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공산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우한에서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1938.10).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인 조선 의용대는 중국 국민당 군대와 함께 선전 활동, 일본군 포로 심문 등을 수행하였으나, 일부는 중국 국민당의 과도한 통제와 소극적 항일 투쟁에 반발해 김효삼, 윤세주 등의 다수 부대원들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여 조선 독립 동맹 및 조선의용군을 결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1942).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군(팔로군)의 지원을 받으며 함께 태항산 전투, 호가장 전투 등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조선 의용대의 대원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한 후 김원봉과 남은 세력들은 임시정부(군무부장)와 한국 광복군(1지대장)에 합류하였다(1942).

① 남만주에서 결성된 조선 혁명당 산하에 1929년 결성된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요녕민중자위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② 임정 산하의 한국광복군은 미국의 전략정보국(OSS)과 협조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으나(정진군, 1945.3), 일제의 다소 이른 패망으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③ 북만주에서 한국 독립당의 산하에 1931년 결성된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아래 중국군(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④ 간도참변 이후 소련의 지원을 받고 제 독립군들은 대한독립군단(1920.12, 총재 서일)을 결성하여 극동 자유시로 들어갔으나, 독립군 내부의 군 지휘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소련군의 공격을 받는 자유시 참변을 당하며(1921.6),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40. 다음 공고가 발표된 이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임시 정부 포유문

1. 본 정부는 이번 제32회 임시 의정원 회의에 임시 약헌 개정으로 제출하여 임시 정부의 조직 기구를 변경하였으니 국무위원회 주석과 국무 위원을 모두 의회에서 선출하여 종전에 국무 위원끼리 주석을 호선하던 제도를 폐하였다. 또 국무위원회 주석은 일반 국무를 처리할 때는 총리직을 가졌고, 그 외 정부를 대표하며 국군을 총감하는 권리를 설정하였으니 이 방면으로는 국가 원수직을 가지게 되었다.

- ①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 ② 삼균주의에 바탕을 둔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 ③ 무장 투쟁을 위해 육군 주만 참의부를 조직하였다.
- ④ 국민 대표 회의를 열어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 ⑤ 임시 사료 편찬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정답: ②

* 4차 개헌(1940) 이후의 임정 활동

1919년 4월 상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임시헌장에서 의정원(입법부) 규정과 공화정 체제를 명시하였고 이후 임정 헌법의 기본틀이 되었다.

1919년 9월,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서울의 한성정부를 통합하여 상하이에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차 개헌으로 의정원, 국무원, 법원의 3권 분립 체제와 대통령제를 갖추었다(초대 대통령 이승만).

임시정부는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독립을 주장하였고,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 임시정부는 애국(독립) 공채를 발행하고,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배포하였으며, 사료 편찬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군사적으로는 중국 본토에 있는 여건상 자체적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없어 남만주에 직할 군단으로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육군 주만 참의부(1924)를 두어 무장 투쟁을 전개하다 후일 충칭에서 임정 자체적으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1940.9)

임시정부 초기의 외교 활동이 번번히 좌절되는 가운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통치 요청 문제가 계기가 되어 임시정부는 내분에 빠져들었다. 임정의 방향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1923)가 열렸으나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 속에 회의는 결렬되고 많은 인물들이 임정을 떠났다.

1925년, 임정은 미주 지역의 독립 자금을 독점하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곧 헌법을 고쳐 내각 중심의 국무령제 개헌을 하였다(2차 개헌). 그러나 위상이 약해진 임정의 국무령에 주요 인물들이 나서지 않았고, 결국 김구가 1926년 말 취임한 후 1927년, 국무령 중심의 집단지도 체제(국무위원제)로 전환하여(3차 개헌) 이동녕과 함께 체제를 재정비해 나갔다.

중·일 전쟁(1937)으로 일본군이 항저우로 침략하자, 임정은 호남성 창사 등을 거쳐 1940년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사천성 충칭에 정착하고, 동년 10월에는 주석 중심제 헌법을 채택하였다(4차 개헌: 김구 주석).

임정은 1941년 11월,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여 광복을 앞두고 분열된 민족 운동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의지도 담았다. 그리하여 임정과 라이벌 관계였던 김원봉의 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임정과 한국광복군에 편입하고, 1944년 4월에 임정은 5차 개헌을 하여 주석·부주석 지도 체제를 취하여, 민혁당의 김규식을 부주석에, 김원봉은 군무부장으로 임명하여 민족연합전선을 더욱 강화하였다.

41.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양기탁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 ②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 ③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 ④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신홍 강습소를 설립하였다.
- ⑤ 독립 투쟁 과정을 정리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정답: ③

* 항일무장투쟁의 영웅 홍범도

홍범도(1868~1943) 장군은 구한말 평민 포수 출신의 불세출의 독립군 장군이다. 정미 의병 때에 북간도와 연해주에서 두만강을 도하하여 국내로 진공하려는 이범윤, 안중근의 연추 의병 부대(1908.7~9)와 호응하여 삼수, 갑산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3.1 운동 이후에도 국내진공 작전을 통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일본 군대, 경찰, 식민 통치기관을 습격하던 중, 1920년 6월, 두만강을 건너 추격해오는 일본군 대대를 맞아 봉오동에서 일본군 다수를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150여명 사살).

봉오동 전투(1920.6)에서 대패한 일본군은 대규모 부대를 파병하여 만주의 독립군을 뿌리 뽑기 위해 훈춘 사건을 일으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만주의 독립군을 압박해 왔다. 이에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과 함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은 청산리에서 1920년 10월 21일부터 6일 간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1200여명 사살, 청산리 대첩).

그러나 간도참변(1920. 10~12) 이후 소련의 지원을 믿고 극동 자유시로 들어가 참변(1921. 6.)을 겪은 후 다시 입국치 못하고,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이끌려 온 후 극장 야간수위,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1943년 76세로 사망하였다.

① 안창호(1878~1938)는 국권의 회복과 공화정체의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양기탁 등과 함께 신민회를 결성하였다(1907.4).

② 여운형(1886~1947)은, 1944년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고 비밀단체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여 건국을 준비하였고, 해방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하였다(1945.8).

④ 1911년, 신민회의 서간도 삼원보 개척에 앞장서 이회영(1867~1930) 형제들과 이상룡(1858~1932) 등은 경학사(耕學社)와 신홍강습소를 설립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⑤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1859~1925)은, 1884~1919년의 독립투쟁의 역사를 다룬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를 저술하여 국혼, 국백 사상을 역설하며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였다.

42.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②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 ③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④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를 구호로 내세웠다.

정답: ④

* 6.10 만세운동(1926)

3.1 운동(1919) 이후 192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가 국내에 본격화되고 학생들의 의식의 커지게 되었다.

사회주의자와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1926).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한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다.

그러나 학생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순종의 국장일인 6월 10일, 학생들은 일제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만세시위를 벌였고, 많은 시민들이 합

세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국 곳곳의 학생들도 동맹휴학 투쟁을 벌여 호응하였다.

6·10 만세운동은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일제 타도를 위한 구체적 실천노선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당시 격문에는 '일체의 납세를 거부하라!',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마라!' 등 민중이 실천해야 할 경제투쟁의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운동의 준비 과정에서 조선 공산당 등 사회주의 세력과 천도교 등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함으로써 민족 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이 되어, 이듬해에 신간회가 결성되는 배경이 되었다(1927.2).

① 만주에서 계속되는 항일독립군 활동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일제는 1925년 6월, 만주 군벌(장쥘린) 사이에 독립군의 탄압, 체포, 구속, 인도에 관한 이른바 미쓰야 협정 체결하였다. 이로써 독립군의 활동은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② 신간회는 1929년 11월에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자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민중 대회를 준비하였으나, 경찰의 탄압으로 좌절되었다.

③ 국민의 모금으로 나라 빛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 대구 광문사의 서상돈, 김광제 등의 주도하에 시작되어, 이후 국채보상기성회를 중심으로 각종 계몽운동단체와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 단체들이 참여하며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⑤ 동아일보는 1931년부터 '브나로드 운동'이란 이름을 내세워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했는데, 여름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모아 행사를 기획하고 교재를 공급하였다.

43.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김창숙은 동년 음력 3월 중순에 상하이에 도착하여 본래부터 친분이 있는 (가)의 간부 김원봉, 유우근, 한봉근 등을 만나 여러 가지로 의논하였다. …… (가)의 단원인 나석주를 조선에 잠입시켜 동양 척식 주식회사, 조선 식산 은행 등에 폭탄을 던지고 권총을 난사하여 인명을 살상케 하였다는 것인데, 김창숙은 나석주가 조선에 건너가서 암살할 자로 영남의 부호 장모, 하모, 권모 등을 지정한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 ①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되었다.
- ②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 단체였다.
- ③ 만민 공동회를 열어 민권 신장을 추구하였다.
- ④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 ⑤ 단원 일부가 황푸 군관 학교에 입학해 군사 훈련을 받았다.

정답: ⑤

* 의열단

의열단은 1919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그들은 끊임없는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려는 목적으로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나 친일파 거두 등을 처단하고, 조선 총독부나 경찰서, 동양 척식 주식 회사 등 식민지 착취 기관을 파괴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부산 경찰서(박재혁)를 시작으로 밀양 경찰서(1920, 최수봉), 종로 경찰서(1923, 김상옥), 조선 총독부(1921, 김익상), 도쿄의 일본 왕궁(1924, 김지섭), 식산 은행과 동양 척식 주식 회사(나석주, 1926) 등에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감행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활동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동포들에게는 항일 의식과 독립에의 희망을 심어 주었다.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1923)’에는 의열단의 행동 강령과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 민중 직접 혁명을 달성하려는 의열단의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1925년부터 의열단은 방향 전환을 모색하였다. 암살이나 파괴만으로는 민족 해방 운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여겨, 대원을 황푸군관 학교에 입교시키고,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여 조선인 간부를 양성하였다(1932).

① 태평양전쟁은 1941년 12월에 발발하였다.

② 임병찬은 고종의 밀지에 따라 비밀결사체인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1912).

③ 독립협회는 자주국권, 자유민권 등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1898.3)

④ 비밀결사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1907년 결성)는, 한일병합 후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사건과 관련된 안악 사건 날조에 의해 (105인 사건) 해체되고 말았다(1911).

44. 다음 영화가 처음 개봉되었던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이 사진은 나운규가 감독 주연을 맡아 제작한 영화의 장면과 제작진의 모습입니다. 단성사에서 개봉된 이 영화는 식민 지배를 받던 한국인의 고통스런 삶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 ① 카프(KAPF)에서 활동하는 신경향파 작가
- ② 원각사에서 은세계 공연을 관람하는 학생
- ③ 육영 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교사
- ④ 전차 개통식에 참여하는 한성 전기 회사 직원
- ⑤ 손기정 선수의 올림픽 우승 소식을 보도하는 기자

정답: ①

* 영화 '아리랑'이 개봉되던 1926년 당시의 사회상

- 1926년, 나운규(1902~1937)의 아리랑이 제작·상영되면서 한국 영화는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아리랑은 항일 의식과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 3·1 운동 이후인 1920년대의 문화 동향은 동인지, 잡지 간행, 사실주의·사회주의 문학(신경향파) 등의 특색이 있다. 서양 문예사조의 영향을 받아 창조(1919), 폐허(1920), 백조(1920) 등의 동인지와 여러 잡지가 간행되며 다양한 문학 활동이 전개되었다. 염상섭의 '만세전', 현진건의 '빈처'에서와 같이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개인의 고단한 삶을 다룬 사실주의적 경향이나, 3·1 운동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좌절과 허무감에 빠져 퇴폐적 낭만주의로 흐르는 경향도 나타났다. 1920년대 후반에는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식민지 현실의 계급모순을 적극 비판하는 프로 문학(신경향파)이 등장하여 카프(KAPF)를 결성하였다(1925).

② 1908년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에서 이인직의 '은세계'가 공연되며 신극 운동이 시작되었다.

③ 개항 후 정부에서는 육영공원(1886~1894)을 세우고 헐버트 등 미국인 교사 세 사람을 초빙하여 주로 양반 자제들에게 신지식과 외국어를 가르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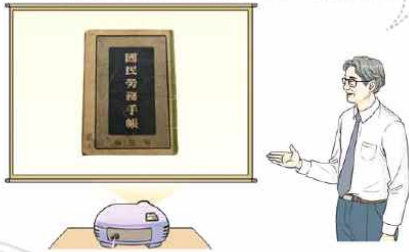
④ 1898년 1월에 황실과 미국인 콜브란과의 합작으로 세워진 한성 전기 회사는 발전소를 세우고 서울에 전등과 전차를 가설하였다. 전차는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최초로 운행하였다(1899.5).

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이 우승하였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움으로써 일제에 의해 강제 정간을 당하는 큰 탄압을 받았다.

45.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이 국민 노무 수첩은 일제가 중 일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노동력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입니다. 특히 강제 동원된 한국인의 국민 노무 수첩은 일제에 의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광산 등으로 끌려가 열악한 환경에서 혹사당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① 한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였다.
- ②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 ③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통해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 ④ 식민지 교육 방침을 규정한 제1차 조선 교육령을 제정하였다.
- ⑤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답: ③

* 일제의 총동원 정책

일제는 중일전쟁(1937)의 배경 속에서 1938년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하고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1941)을 도발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창씨개명, 1939),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또한, 기존의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에 이어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을 공포하여 한국인 사상범을 사전에 탄압하였다

인적 수탈로 일제는 강제 징용(1939년 제정, 1944년 전면 실시, 국민노무수첩 소지)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학도 지원병 제도(1943), 징병 제도(1944)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여자 정신 근로령(1944)을 제정하여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작업복 몸빼 유행),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물적 수탈로는 양곡 배급제와 함께 미곡공출을 실시하였으며(1940),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 산업 이외의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손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금속 공출, 1942).

①, ②, ④, ⑤ 일제의 1910년대 식민지 지배 방식은 헌병 경찰을 앞세운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무단통치로 대표적인 법령인 조선 태형령(1912~1920)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인 법령이었다.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을 실시하여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강제로 빼앗고, 회사령(1910~1920)을 제정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산할 때에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교육에서는 1차 조선 교육령(1911)을 제정하여 일본어를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인에게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 교육 연한을 4년으로 하여 일본(6년)과 차별하였다.

46.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화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우리는 남방만이 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

(나) 귀국한 이래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온갖 잡음을 물리치고 남북 통일과 독립을 이루고자 나머지 목숨을 38도선에 내놓은 김구의 얼굴에 이제 아무런 의혹의 티가 없었다. 이윽고 김구를 태운 자동차는 38도선을 넘어 멀리 평양을 향하여 성원 속에 사라졌다.

- ①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 ②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 ③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 ④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⑤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정답: ①

* 정읍발언(1946.6)과 남북협상(1948.4) 사이의 역사적 사실

일제가 항복하기 직전, 조선 건국 동맹의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이양 받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다(1945.8). 여기에는 민족주의 세력의 안재홍 등도 참가하였으나 좌익 세력이 건국 준비 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조선 인민 공화국의 수립을 선포(1945.9.)했으나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이유로 미군과 소련군이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미군-직접통치, 소련군-김일성을 내세운 간접통치).

1945년 12월, 모스크바의 3국 외상 회의에서는 임시민주정부의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공동 위원회와 임시정부는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협정을 만들 것 등을 결정하였다. 이에, 신탁통치에 반대한 우익과 찬성하는 좌익이 대립하게 되었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1

차: 1946.3~5, 2차: 1947.5~8)가 열렸으나,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사회단체 선정 문제로 결렬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론을 내비친 정읍 발언(1946.6) 이후 우익 세력은 자신들의 노선을 중심으로 한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여운형과 김규식은 중도 세력은 좌우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1946.7) 합작 운동을 추진하여 좌우합작 7원칙에 합의에까지 이르렀다(1946.10).

그러나 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상정에 의해 유엔에 이관되었다(1947.9).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을 가결하였다. 1948년 1월 유엔 한국임시 위원단이 남한은 입국하였으나, 소련이 이에 반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1948.2).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남북협상)를 개최하였지만 실패하였다(1948.4).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비밀 선거인 5·10 총선거가 1948년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1948.8.15.).

④, ⑤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여(1948.9), 반민특위(1949. 1~8)가 활동하였지만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친일파 처벌은 좌절되었고,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농지개혁법을 제정(1949.6)하여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이루어진 농지 개혁(1950.3~1957)이 실시되었다

47.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이 사건은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200여만 표 이상을 얻어 (가) 정권에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조봉암이 이끄는 진보당의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고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가) 장권의 의도가 작용하여 서울시경이 조봉암 등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대가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수사에 나서 재판을 통해 처형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 유린이자 정치 탄압 사건이다.

-「진보당 조봉암 사건 결정 요지」-

- ①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 ② 농촌 근대화를 표방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③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가 설치되었다.
- ④ 한·독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서독으로 광부가 파견되었다.
- ⑤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정답: ⑤

* 진보당, 조봉암 사건이 있던 이승만 정부 시기(1948.8~1960.4)의 역사적 사실

조봉암(1899~1959)은 일찍이 무정부 좌파 계열의 흑도회(1921)에서 활동하다가, 조선 공산당(1925) 결성을 주도하고 활동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1946년 박헌영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고 조선공산당을 탈당하고 우익 진영으로 전향하였고, 1948년 제헌 내각의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농지개혁을 주도하였다. 1956년 대선에 출마하여 선전하였으나 낙선하고 곧 진보당을 창당하였다(1957).

그러나 얼마 못가 1958년 국가 보안법 위반과 간첩 혐의로 체포되고, 진보당은 해체되었으며(1958), 1959년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전격 처형되었다.

2011년 대법원에서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고 명예가 회복되었다.

①, ②, ④ 박정희 정부 시기(1963.12~1979.10)인 1972년 10월, 유신 헌법(7차 개헌)을 제정하여 국민이 직접 선출한 통일주체국민회의(의장 대통령)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고, 박정희 정부의 공업화 전략에 따른 도시의 눈부신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의 개발과 소득 증대를 위해 1970년부터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외화 부족에 시달리던 박정희 정부는 1963년부터 광부와 간호사를 서독에 파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수입은 1960~7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의 종자돈 역할을 했다.

③ 전두환이 국보위 위원장 시기에 제정되어 대통령 시기(1980.8~1988.2)에 시행된 삼청 교육대(1980.8~1981.1)는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사회 우범자를 군부대에 가두어 가혹하게 다루었다.

⑤ 본래 이승만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으나,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1958년 12월, 더욱 강화된 신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48. 다음 사실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연간 조강 생산량 1백 3만 톤 규모의 제철 일관공장을 갖춘 포항 종합 제철 공장 제1기 준공식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총 공사비 1,200여억 원(외자 700여억 원 포함)을 들여 3년 3개월 만에 완공된 이 공장에서 생산된 철강은 조선, 기계,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 분야의 원재료로 쓰이게 된다.

- ①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②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 ③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 ④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 ⑤ 3저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하였다.

정답: ②

* 포항제철이 건설된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1962년부터 박정희 군사정권의 강력한 주도 하에 추진된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71)에서는 경공업과 수입 대체 산업,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1962년부터 울산 공업단지가 조성되고(1964년 울산 정유공장 준공), 마산 수출자유 지역(1970.1)이 조성되고 포항 종합제철(1968)과 소양강댐(1967~1973)과 경부 고속국도(1968.2~1970.7)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한·일 협정 체결의 대가로 들어온 외화와 베트남 파병에 따른 베트남 특수는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1970년대에는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1981)이 추진되어 중화학 공업, 전자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1977년 100억 달러 달성), 국민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이촌향도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촌 공동체의 붕괴, 노동자, 도시 빈민 등의 문제가 생겨났다.

①, ④ 김영삼 정부(1993.2~1998.2) 시기에는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1993), 성급하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는(1996)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하였다.

③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노무현 정부(2003.2~2008.2) 때인 2004년 4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⑤ 전두환 정부 시기(1980~1988)인 1980년대 후반에는 3저(저금리, 저물가, 저환율)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늘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첨단 기술 집약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다.

49.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광주 시민들에 따르면, 공수 부대가 학생들의 시위에 잔인하게 대응하면서 상호 간에 폭력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계엄령 해제와 수감된 야당 지도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행진하면서 돌을 던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폭력적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25명의 미국인들 - 대부분 선교사, 교사, 평화 봉사단 단원들 - 가운데 한 사람은 "가장 놀랐던 것은 군인들이 저지른 무차별적 폭력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 당시 상황을 보도한 외신 기사 -

- ①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 ②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③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 ④ 3·1 민주 구국 선언을 통해 긴급 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 ⑤ 4·13 호헌 조치에 반발하여 호헌 철폐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정답: ②

* 5.18 민주화 운동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10.26 사건으로 이어지며 유신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후, 국민은 민주화를 요구하였으나, 12·12 사태로 군사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이를 억압하였다.

1980년 5월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 활동을 모두 금지시켰다.

5월 18일 광주에서 비상계엄 해제와 신군부 세력 퇴진, 김대중 석방, 민주주의 실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다. 신군부는 공수 부대 등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계엄군의 발포로 많은 시민들이 살상당하자 이에 격분한 학생과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하여 시가전을 벌인 끝에 진압되었다(5.27).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2011년에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① 박정희 정부의 한일국교 정상화과정에서 굴욕적 한일협정 회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있자, 서울에 계엄령이 발동되는 6.3 사태(1964)가 발발하였다

③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에 분노한 시민들의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뒤 국회는 6월,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의원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④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반대하여 재야 정치인, 종교인, 대학 교수 등은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는 3.1 구국 선언(1976)을 발표하였다.

⑤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대통령 직선제)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대통령 간선제 고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되었다(1987.10)

50. 다음 경축사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2점]



지난 3년 반은 개혁을 통해 외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세계 일류 국가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힘써온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국제 통화 기금(IMF)으로부터 지원받았던 195억 달러의 차관을 3년 앞당겨 전액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 ①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②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 ③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 ④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서명하였다.
- ⑤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실현하였다.

정답: ③

* IMF 체제를 조기 극복한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최초로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1998.2~2003.2)는 김영삼 정권 말의 한보 사태를 계기로 국제 단기 자본이 이탈하면서 생긴 1997년 말의 외환위기(IMF구제금융)를 금모으기 운동 등의 국민의 자발적 헌신과 산업 구조조정,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고통 분담 정책 및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조기(2001) 상환할 수 있었다.

① 박정희 정부 때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원칙에 합의한 7.4 남북공동선언(1972)을 발표하여 직통전화(핫라인) 가설과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②, ④ 1990년 전후 노태우 정부는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적극적인 북방외교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1991.8),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1991.12).

③ 김대중 정부 때에 남북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마침내 평양에서 첫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6·15 남북 공동선언(2000)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⑤ 전두환 정부 때인 1985년 9월, 남북한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